

1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59.84	↑ 코스닥	875.93
	(-20.51)		(+2.75)
↑ 금리 (연)	3.275	↓ 환율 (원/달러)	1310.30
	(+0.004)		(-9.50)

metro 경제

의료현장, 군의관 투입
교수 집단행동
이번주 분수령
02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잘 안들리는 노인 “이해했다” 강요... 불완전 판매, 대거 적발

홍콩 ELS 기본배상 20~40%... 최대 100% 배상가능

금융당국, 주요 판매사 조사
투자자 컴퓨터 원격제어 등
불확실성 시기 과도한 판매
투자위험 누락·왜곡 사례도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례없는 손실을 낸 홍콩 H지수 파생결합증권(ELS) 상품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청력이 약한 87세 노인에게도 “이해했다”는 답을 강요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기본배상비율은 최대 40%로 설정하고 판매사별로 최대 10%포인트, 투자자별로는 최대 45%포인트의 가산비율을 더해 손실을 배상할 방침이다. 이론적으로는 전액(100%) 배상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지난 1월8일부터 11개의 H지수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관련기사 3면>

조사 결과, 판매사들은 글로벌 주가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임에도 과도한 영업 목표, 프로모션 등 공격적 영업을 지속해 H

지수 ELS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은행 직원은 87세 투자자가 청력이 약해 “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겠다”고 이야기함에도 투자상품을 “이해했다”고 답할 것을 요구하고, 중도해지수수료 개념에 대해 “가능하면 해지하시면 안된다는 의미”라며 왜곡 설명했다.

A증권사 판매직원은 71세 고

령투자자에게 ELS를 판매하면서 투자자 배우자와 통화해 부부의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고객대신 가입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H지수 ELS 전체 판매잔액 총 18조8000억원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전체 92%를 차지한다. 그중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21.5%를 차지하고 있다.

판매 시스템도 부적절하게 설계·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성향분석 시 거래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상품에 대한 이해도 등 6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함에도,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점수가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부실하게 설계 운영됐다.

‘손실 감내수준 20% 미만’ ‘단기투자희망’ 등 H지수 ELS에 부적절한 투자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유리하게 설계해 판매를 오히려 확대했다. 투자성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손실위험 시나리오, 위험등급 유의사항 등 투자위험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사례도 많았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기본배

상비율을 최대 40%로 설정하고 판매사별로 최대 10%포인트, 투자자별로는 최대 45%포인트 가산해 손실 배상에 나선다. 이론상으로는 손실 전액(100%) 배상도 가능하다.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은 20~40%로 정했다. 불완전 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그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가중한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투자자별로 최대 45%포인트 배상 비율을 가산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0일(수)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군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고금리 속에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잃어가는 수축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테크 전략도 다시 짜야 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고령화시대 재테크와 부동산 투자 전략을 모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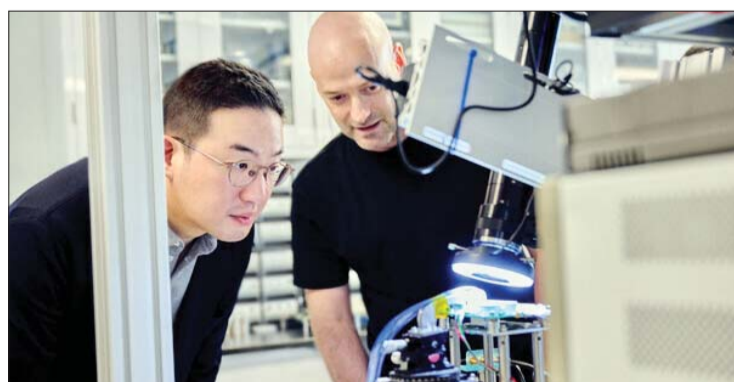
- 행사명 : 2024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군1)
- 주 제 :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 일 시 : 3월 20일(수) 오후 2시~5시1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30분~2시)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구광모, A·B·C 신사업 가속화... AI로 알츠하이머 난제 푼다

(인공지능·바이오·청정기술)

LG, 美잭슨랩과 공동연구개발
알츠하이머 유전 특성 연구자료
엑사원에 학습시켜 치료 극대화



구광모 LG 대표가 지난해 8월 22일 캐나다 토론토 자나두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소 설비를 들여다보고 있다. /LG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A·B·C’ 사업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A·B·C 사업은 그가 제시한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청정기술(Cleantech) 세 가지 미래 핵심 성장 가치다. 지난해 7월 폴란드, 8월 미국·캐나다, 9월 인도네시아까지 해외 ABC 사업 거점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살폈다. 이번에는 A·B·C 사업 중 AI와 바이오가 만났다.

LG는 11일 세계적인 유전체(Genome) 비영리 연구기관인 미국 잭슨랩(JAX)과 알츠하이

머와 암의 원인 규명과 정복을 위한 AI 공동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LG AI연구원과 잭슨랩은 지난해 12월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맺고 최근 본계약까지 체결했

다. 양사는 알츠하이머와 암의 발병 원인 및 진행 과정을 분석하고 치료제 효과까지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LG와 잭슨랩의 협업으로 개발할 AI 모델은 개인 맞춤 치료 연

구의 초석이자 유전자 및 인간 노화 지연의 열쇠가 될 예정이다.

알츠하이머 등 퇴행성 뇌질환은 유전자 및 인간 노화와 밀접한 연관이 커 연구·개발 성과의 응용 및 활용이 무궁무진 하다. LG는 잭슨랩이 보유한 알츠하이머의 유전적 특성과 생애주기별 연구 자료를 자사 개발 생성형 AI ‘엑사원(EXAONE)’에 학습시켜 질병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 효율 극대화를 꾀한다.

암 진단·치료 AI 모델은 개인별 유전체 정보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항암 치료 선택지를 제안하는 새로운 대화형 생성 AI 모델을 목표로 개발한다. 병리 이미지로 신속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

효과를 예측하며 신약의 후보물질 발굴부터 전임상 시험과 임상 시험에 이르기까지 개발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LG는 이번 잭슨랩과의 협업을 통해 유전자 변이에 따른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한 정밀의료 시대를 여는 역할을 기대 중이다.

구 회장은 A·B·C 사업에서도 특히 AI 기술력의 전 계열사 접목에 힘쓰고 있다. 그룹차원에서 AI 분야에 2026년까지 3조 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미 LG AI연구원은 ▲LG 디스플레이(차세대 OLED 발광 재료 예측) ▲LG이노텍(특허 빅

데이터 분석, 제품 검사 공정) ▲LG화학(신약·신소재 발굴 개발) ▲LG에너지솔루션(배터리 전해질 화합물 개발) ▲LG유플러스(고객 리뷰 분석) ▲LG생활건강(제품 디자인 및 색조원료 배합) 등 각 계열사들의 업무 효율 향상과 상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AI 모델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했다. LG AI연구원의 연구개발 성과도 크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 권퍼런스에서 3개 상을 수상하고, 컨퍼런스가 주관하는 주식 종목 수익률 예측 대회에서 163개국 중 상위 5위에 안착했다. 이번 잭슨랩과의 A·B·C 사업 중 또 하나인 바이오 사업과 AI 사업의 유기적 결합이다. LG는 이번 협업을 통해 개인 맞춤형 의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윤 대통령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7300개 일자리 창출” /사진 뉴시스
- ▲ 이재명, 임종석에 공동선대위원장 제안... “민주당 승리 위한 길 고민해야”

- ▲ 개성공단재단, 다음주쯤 해산... “재산권 침해, 필요한 조치”
- ▲ 윤 대통령 지지율 0.9%p 하락한 40.2% ... 3주째 40%대 유지



- ▲ 조국혁신당, 이종섭 출국 책임에尹 고발 /사진 뉴시스
- ▲ 한 총리, ‘전원 전문의’ 뇌혈관 전문병원 방문... “정부가 구현할 모델”

의료 현장에 군의관 투입... 교수 집단행동 '이번주 분수령'

전공의 공백 4주차

복지부, 군의관 등 170명 내일 근무 공백 막기 위해 순환배치 200명 계획

병원 3곳 교수들 긴급총회

단체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 논의 시국선언 발표 후 연대서명 본격화

전공의 공백이 4주차에 접어들며 정부가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현장에 투입했다. 미복귀 전공의에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전까지 돌아오면 정상 참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아직 집단행동을 결의하지 않았지만 반발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향후 변수로 주목된다.

◆군의관·공보의 투입 시작

11일 보건복지부는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50명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투입 인력 중 138명이 일반이다. 이들은 파견된 기관에서 교육 등을 받고 오는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현장 상황에 따른 추가 인력 투입도 추진된다. 파견에 따른 인력 공백



정부가 11일 전공의 의료 공백에 대응해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조사 138명을 20개 병원에 파견했다. 이날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한 군의관이 파견근무에 나서고 있다. /뉴스시스

을 막기 위해 순환 배치 또는 약 200명의 공보의 추가 배치도 계획 중이다. 전체 공보의는 1400명 규모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94명이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지난 8일 기준 총

4944명에게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처분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진행 중에 복귀하게 되면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며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더 열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12일부터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 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수 집단행동 이번주 분수령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에서 각 병원 소속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총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 현 상황과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단체 사직서 제출 등 집단 행동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는 자

체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자의 85%가 "전공의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국외과대학교수협의회(전외교협)도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외교협 역시 집단사직을 고려하진 않지만 개별 사직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오는 14일부터 의대생들의 유급과 휴학이 결정되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교수들의 개별 사직이 이어지거나 일부 집단행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국선언문 발표와 함께 시작된 동료 교수들의 연대서명도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분당차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고대안양병원 소속 의료진들은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연대서명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총 6482명이 시국선언문에 동의해 연대서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le@metroseoul.co.kr

'집단유급' 우려... 교육장관, 의대생에 대화 제의

이르면 14일 '집단유급' 나올수도 의대협서 13일까지 대화에 응하면 학사운영 정상화·학습권보호 등 논의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집단유급' 사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의대 학생단체 대표에게 대화를 제의했다.

수업 일수를 채우려면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에는 개강해야 대규모 유급 사태를 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일 대치를 이어가는 정부와 의대생들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각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

협) 대표에게 연락해 대화를 제안했다. 의대협 측은 13일 오후 6시까지 대화에 응하겠다고 답신하면,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의대생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이래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과 직접 만난 적은 없다. 다만, 전국 40개 의대 운영 대학의 총장과 교무처장을 여러차례 소집해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의대생 장기 결석이 이어지면서 무더기로 유급 처리될 경우 내년 수업 수업은 물론, 향후 의사 수급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1학

기 수업 일수를 최소 15주 확보해야 한다. 대학별로 구체적 학칙은 다르지만, 의대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F 학점을 부여하고 유급 처리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빠르면 오는 14일을 기점으로 집단 유급되는 의대생들이 나올 수 있다. 앞서 2월부터 수업을 진행한 한림대 의대의 경우 결석 일수가 한계에 도달해 지난주 의학과 1학년 학생 중 수업 출석 일수가 미달한 학생들에게 유급 예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개강하지 않은 의대의 경우, 방학 없이 8월 말까지 1학기 수업이 이어가면 4월 말 개강해도 수업 시수는 채울 수 있지만, 대부분 교수가 진료와 강의를 병행하는 의대 특성상 위험 부담

이 있다.

교수들도 본격적인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외과대학교수협의회(전외교협)도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외교협은 이달 안에 의대생 휴학 사태를 해결해야만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0일까지 누적된 휴학 신청은 총 5445명으로 나타났다. 유급 휴학 신청은 8일과 9일 8개교에서 10명으로, 지금까지 의대생 1만8793명 중 누적인원 5446명이다. 의대 총인원의 29%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어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5일 경기도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뉴스시스

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해서 협조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의대 학생단체 대표) 만남은 지금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대학의 수업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한 부분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로 제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ihj@

산업부-배터리 3사 '꿈의 배터리' 개발 힘 모은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5년간 1172억 올해 기업서 설비 등에 9조 이상 투입

정부와 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와 LFP 등 보급형 배터리 개발에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배터리 3사가 참여하는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에 2028년까지 총 1172억원을 투입해 전고체, 리튬메탈, 리튬황 등 3가지의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차세대 배터리란 기존 소재와는 다른

물질을 사용해 배터리 성능·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이차전지를 말한다. 현재 상용 배터리가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을 이용해 화재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여 전기차를 비롯해 많은 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높다.

리튬메탈 배터리는 음극소재에 흑연 대신 리튬메탈을 사용해 에너지밀도와 수명 개선이 기대되며, 특히 흑연을 사용하지 않아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리튬황 배터리는 양극소재에 리튬이

아닌 황을 사용해 기존 배터리보다 가벼워, UAM 등 기체의 무게가 중요한 도심항공용으로 적합하다.

국내에서는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개별 기업 단위에서 개발이 진행중이나, 이번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국내 부품·소재·장비·셀·완성차기업을 모두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용하는 소재·공법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 개별 기업이 모든 필요 기술을 개발하고 적정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며 "배터리 셀 기업뿐 아니라, 소부

LG 에너지솔루션



장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형과제를 통해 시장 초기부터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내달 과제를 공고하고, 상반기 중 평가를 거쳐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시장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LFP 등 보급형 배터리 개발에도 민·관이 힘을 모은다. LFP 배터리 점유율은 2020

년 16%에서 2023년 38%로 급증했고, 나트륨 배터리도 보급형 시장에서 주목받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배터리3사와 예코프로·LNF이 LFP용 양극재 개발 등 LFP 제품 관련 투자를 진행 중이며, 산업부는 작년 LFP 배터리에 이어 올해 나트륨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민간의 기술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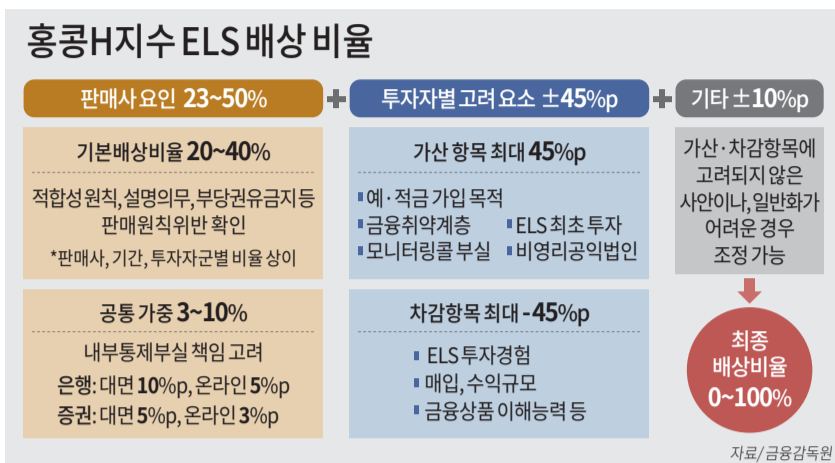
배터리 관련 설비투자도 연구개발도 본격 추진된다. 기업들은 올해 총 9조 원 이상의 자금을 설비와 연구개발에 투자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라인,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 LFP 양극재 생산라인, 흑연 가공 등 음극재 생산라인 등 설비 투자에 총 7조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홍콩 H지수 ELS 배상

분쟁조정안,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부당권유 여부 등 반영

금감원, 판매사·투자자 협조 당부
손실 6조대 전망... 대부분 개인
실질적 배상비율 20~60% 전망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된 손실이 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 중 개인 투자자는 92%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기본배상비율을 최대 40%로 정하고 판매회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해 최종배상비율 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론적으로는 100% 배상이 가능하지만 배상비율은 대체로 20~60%에 머물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손실 배상 시작

11일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공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했다. 투자자 고려요소의 경우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비율에 최대

45%p 가산하기로 했다. 예·적금 가입 목적이었던 고객에게 팔았거나 금융취약계층 혹은 ELS 최초 투자인 경우, 자료 유지와 관리·모니터링 불실 등이 가산 항목이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그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가 중한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여 은행 5%p, 증권사 3%p 적용하기로 했다. 또 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능할 수 있는 ELS 가입횟수, 금액 등 투자경험, 금융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 차감

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을 찾았던 80대 초반 A씨는 은행 직원 권유로 2500만원을 투자했다가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하면서 손실이 확정됐다. 이 사례에서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여 설명의무 위반(일괄 기본배상비율 20%), 내부통제 부실 소지(공통가중+10%p), 투자권유자료 미보관(+5%p) 및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15%p) 등이 확인됐다. 투자자 A씨는 ELS 상품 가입 경험이 미미하고 가입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 차감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A씨에 대한 손실 배상 비율을 75% 내외 수준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대다수의 배상비율이 20~60%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배상비율은 평균 20~80%, 그 중 6개 대표 사례로 40~80%로 제시했던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DLF 사태 때와 비교해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 보호 환경 등을 감안하면 DLF 때보다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기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배상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다음달부터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각 판매사는 조정기준에 따라 사전화해 방식의 자율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총 예상 손실 5조8000억원 달해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

준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총 18조 8000억원이다. 은행이 15조4000억원, 증권사가 총 3조4000억원을 판매했다. ELS는 특정 주가지수에 연동된 증권으로 만기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속된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홍콩 H지수는 지난 2021년 2월 1만2229포인트에서 2022년 10월 4939포인트로 59.6%나 급락했다. 이후 소폭 반등하기는 했지만 올해 2월말 기준 5678포인트에 그치고 있어 고점 대비 여전히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전체 잔액의 80.5%인 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몰려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상반기 집중됐다. 지난 2월까지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가운데 총 손실 금액은 1조2000억원으로 누적 손실률은 53.5%에 달한다. H지수가 지금 수준에 머물 경우 향후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 더 늘어난다. 이 가운데 개인이 전체 92%를 차지해 피해가 가장 클 전망이다. 특히 개인투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비중은 21.5%(8만4000계좌), ELS 투자 경험 없이 있던 최초 투자자 비중은 6.7%(2만6000계좌)로 집계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조용병 “은행별 조정안 수용여부 점검... 민간·당국 소통 출발점 될 것”

(은행연합회장)

조 회장, 홍콩 ELS 관련 유감 표명
“소비자 중심 영업문화 더욱 노력”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뉴스시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안 발표로 ELS 판매 은행들이 민간 또는 당국과 소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병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 조정안은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수용 여부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배상안을) 수용하더라도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이런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재직 당시에 사모펀드에 얽혀서 고생을 많이 했고 반성도 했다”며 “이후 금융소비자법도 도입됐는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한 점 죄송스

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조 회장은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은행 판매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ELS 상품 하나를 파느냐, 안 파느냐의 문제라기보단 은행 산업이 앞으로 자산관리 쪽으로 갈 때 자산관리 측면에서 고객에 선택권을 더 주고, 고객 선택권이 좁아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은행권, 더 크게는 자본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앞으로 소비자 중심의 영업문화에 대해 더욱 노력이 필요해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원칙들이 미미한 점을 보완을 해 소비자 보호에 더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내부통제의 구조나 실정을 실질화하는 데 은행연합회가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콩 ELS 사태 이후 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위축될 수 있던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공모, 사모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은행들의 사업 경영의 부분에서 검증은 받게 될 것”이라며 “비이자이익의 원천에 대한 논의 속에서 수수료 수익 확대는 맞지만, 은행의 판매수수료 규모는 상당히 한정적이고 규제적이기 때문에 고객은 자문을, 은행을 자산관리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업권 내 사업 전반이 다소 위축된 경향이 있다며 이를 활성

화하기 위한 은행연합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사회를 통해 은행장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연초부터 은행권 전반의 경영 전략이 위축돼 있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은행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부정적이기 때문에 신사업 진출을 포함한 적극적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1분기가 지나면 분위기가 다소 반전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그간 진행됐던 은행권 제도개선 TF 등 혁신논의, 은행권의 비금융 진출 및 금융그룹 자회사와의 시너지를 위한 제도 논의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기업들, 상품가격 ‘조금씩·자주’ 올렸다

한은, 팬데믹 이후 가격조정 행태 분석
상품가격 유지기간 9.1개월→6.4개월

국내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품 가격을 한 번에 크게 인상하지 않고 조금씩 자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고, 경쟁품으로 대체할 것을 우려해 인상은 유지한 반면 빈도를 높여 가격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BOK이슈

노트: 팬데믹 이후 국내기업 가격조정 행태 변화의 특징과 영향’에 따르면 국내기업은 팬데믹 이후 가격인상 빈도가 크게 늘어난 반면 가격 조정폭은 팬데믹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조정빈도 4.6%p 상승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제품의 가격 조정 빈도는 2018~2021년 11% 수준에서 2022년~2023년 15.6%로 상승했다. 평균 상품가격 유지기간은 9.1개월

에서 6.4개월로 단축됐다. 이동재 조사국 물가동향팀 과장은 “가격조정 빈도는 인하보다 인상빈도가 늘어나며 상승했다”며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인상빈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과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격 조정 폭은 변화가 미미했다. 2019년 이후 국내 생활품 가격 인상은 1회당 평균 20~25%, 인하율은 15~20% 수준이다. 특히 인상 빈도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 오를 때마다 1%포인트(p) 증가했다. 기업들이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 경쟁품으로의 대체를

우려해 가격인상시 폭보다 빈도 조정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설명이다. ◆유가 등 비용 충격시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 가능성 이날 한국은행은 유가상승과 같은 비용상승 충격이 2배로 커지면 기업들이 가격인상빈도를 늘려 인플레이션 또한 2배 이상 확대된다고 내다봤다. 동일한 충격의 크기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고유가, 펠트업 소비 등 서로 다른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이 과장은 “고인플레이션 기간 중 기업들은 가격인상을 조정하기 보다는 인

상빈도를 높이면서 대응했다”며 “특히 유가 급등과 같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인상빈도가 늘며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용상승 충격이 없더라도 물가수준이 높은 상황이라면 인상빈도가 늘어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월 기준 3.1%로, 목표수준(2%)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상황에서 지정학적 갈등으로 유가상승이나 기상이변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정권안정’ 與, 42% vs ‘심판’ 野, 43%... 오차범위 내 접전

〈리얼미터 조사 결과〉

총선 D-29 여론조사 비교

리얼미터, 국민의 힘 지지율 하락 양당간 차이 1.2%포인트로 좁혀 꺾임에선 국민의힘이 6% 앞서가 조국혁신당 첫 포함돼 6% 지지율

4·10 총선이 30일 남은 11일, ‘정권 심판’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권 지원’을 기치로 세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지난 7~8일 조사, 표본오차 ± 3.1%포인트)의 정당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3.1%, 국민의힘은 41.9%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하면서 양당 간 차이는 1.2%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는 이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6.7%, 민주당이 39.1%가 나온 것과는 비교되는 결과다.

이날 조사에서 개혁신당은 3.1%, 새로운미래 1.7%, 녹색정의당 1.5%, 진보당 1.4%, 새진보연합 0.6%, 기타정당 2.2%, 무당층은 4.6%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70세 이상(64.0%), 60대(51.7%), 18~29세(42.0%) 등에서 강세를 보였고, 민주당은 40대(59.3%), 50대(52.6%) 30대(45.9%) 등에서 지지도가 높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에 선거일을 알리는 알림판이 세워져 있다. /뉴스시스

하지만 지난 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 5~7일, 표본오차 ± 3.1%포인트)는 리얼미터와는 다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민주당 31%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눈여겨 볼 점은 조국혁신당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6%,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은 각각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9%였다.

또 같은 조사에서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는 응답은 39%, ‘민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론)는 응답은 35%였다. ‘제3지대가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16%였다.

다만 질문을 달리했을 때,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범야권을 의미)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론)는 51%,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는 응답은 35%였다. 현재까지 정부 견제론이 더 앞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의향은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정당)가 37%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연합(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 25%, 조국혁신당 15%, 개혁신당 5%,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2%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가 며칠 사이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총선을 30일 남겨놓고 민주당 우세였던 여론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 더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채 교수는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이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쪽으로 많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정 정당이 여론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분석하면서 “다만 정당 지지도는 여론조사 방법(전화면접·ARS)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국혁신당을 찍는 이들은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박상병 평론가는 “정권 심판론의 강도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이번 선거에서 야당의 핵심 깃발은 정권 심판론이 될 것”이라며 “강도가 셀 것인가, 약한 것인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변수가 남아 있지 않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대세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채진원 교수는 “민주당은 중

간평가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을 언급하겠지만, 지지층은 결집이 됐고 문제는 중도층”이라며 “중도층이 봤을 때 ‘윤석열 독재’라는 이야기가 와닿을지, 눈앞에서 보이는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와닿을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조국혁신당이 주목받을수록 ‘조국 사태’도 다시 각인될 것이라며 “이재명과 조국의 연합이나, 이재명과 친북 세력의 연합이라든가 하는 것이 막판 ‘트리거’로 반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의 돌풍에 대해서도 다른 예측이 나왔다. 박상병 평론가는 “조국혁신당이 뜨면(민주당 지지층들은)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정당은 조국혁신당을 찍는 ‘교차 투표’가 일어날 것”이라며 “조국신당이 뜨면 민주당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이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채진원 교수는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 민주당이 악영향을 받는다. 단순히 비례대표 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재명 체제에 대한 결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에서도 영향력이 퇴조하게 되면 많은 지지층이 이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박태훈 기자 syj@metroseoul.co.kr〉

尹 “강원, 데이터·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소양강댐 심층수, 데이터센터 전력 감축”

‘강원도의 힘!’ 민생토론회 333프로젝트 조기 성공 뒷받침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으로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도의 힘!’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전을 지켜온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력 산업을 데이터·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강원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도의 힘!’이라는 주제로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원도에 더 이상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산업 기지화 ▲고품격 산악관광 육성 ▲의료 취약 및 물 부족 등 민생 애로 해결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기지화와 관련해 “강원도의 군사시설들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버팀목이지만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고, 울창한 산림, 댐, 호수는 수도권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나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아 강원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경제특별자치도 그런 의미에서 출범하게 됐고 저도 지

에서 데워진 물을 스마트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산업단지다.

윤 대통령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와 관련해 “이를 통해 730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디지털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올해 강원이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데이터산업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간기업에도 토지 수용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동해와 삼척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강릉은 2600억원을 투입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강원도의 자연자원과 올림픽 자원을 활용해 산악관광 메카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 1호 공약이자 40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돼 산악관광의 날개를 달게 됐다”며 “2026년에 본격 운영되면 1300억 이상의 경제효과를 지역경제에 줄 것이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국내 1호, 사업비 3600억 투자

강원 춘천에 국내 첫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가 들어선다. 연평균 섭씨 7도의 냉기를 유지하는 소양강댐 심층수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춘천지역에 모여 있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데다, 냉방 사용 후 주변 스마트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수열에너지란 해수 또는 하천수에 저장된 열에너지를 뜻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 3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도의 힘’에서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춘천을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춘천에 위치한 강원도청에서 개최됐으며,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도 춘천 일대에서 열렸다.

환경부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81만 6000㎡ 규모의 국내 첫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사업비 3600억 원을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대

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춘천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7년까지 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하는 포로젝트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보급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쉼없이 서버를 가동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많은 열이 발생해 냉방에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면 전력소비가 크게 줄어들뿐더러 수력발전·수상태양광을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녹색산업으로서의 가치도 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또 차가운 소양강댐 용수를 데이터센터 냉방에 사용하면 물 온도가 7도 내외에서 12도까지 올라간다. 이를 스마트팜 난방에 다시 사용하게 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춘천봄내체육관에서 열린 집적단지 착공식에서 “수열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성공의 본보기로 만들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환경부는 강원 영동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강릉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승계, 경영 전반의 맞춤형 컨설팅

IBK 컨설팅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중개·주선 지원

M&A 생태계 조성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946호(2023.08.29) 유효기간(2024.08.28)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野 “이종섭, 국가가 해외로 도피시켜”… 與 대응없이 ‘침묵’

(채 상병 의압수사 핵심 공범)

이종섭, 주 호주대사 내정자로 출국 민주당 “외교부·법무부장관 탄핵” 이준석 “‘런종섭’이라 불릴만 해” 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 등도 비판 與 “호주, 국방관련 현안 많은 나라 대통령실, 성질 고려해 인사한 것”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駐) 호주대사 내정자(전 국방부장관)가 호주로 출국하면서 야당이 여권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가 범인을 도피시켰다’고 주장하며 외교부·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총선을 한 달 남겨둔 상황에서 이 내정자 출국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모습이다.

다른 야당들도 이 내정자의 호주 출국을 맹비판했다. 하지만 여당은 해당 사안에 별 다른 대응을 않는 모양새다.

이종섭 내정자는 전날(10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출국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약 20명은 이 내정자의 출국을 막기 위해 조를 나눠 인천공항 게이트를 뒤졌지만, 이 내정자를 만나는 것에는 실패했다.

이 내정자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은 총선 전 정국에 불씨를 더한 모양새다. 야권은 일제히 이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 및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호주로 출국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항의하기 위해 기다리다 이 전 장관이 몰래 입국심사를 마치고 탑승 구역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뉴시스

총선이 한달 남은 상황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정권 심판론의 한 축으로 세울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법의 심판은 언젠가는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 행태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일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내정자의 출국에 대해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총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이 주도하고 진행한 ‘채 상병 수사 외압’ 핵심 공범의 해외 도피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부·공수처가 해외 도피를

방조했고,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검증과 출국 금지 해제 조치로 이 내정자를 해외 도피시켰다고 주장하며,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된 내용을 따지고 또 법적 검토 이후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내정자의 호주대사 임명에 “국가의 기강과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이라며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탄에 성공했는지 몰라도 결국은 패·도피의 주인공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책임을 물어야 할 신법절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공천장까지 줬다”며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에 대한 윤석열 정권식의 화답인가. 한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이자 패륜 정권의 대국민 선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내로 압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이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내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른 야당들도 일제히 이종섭 내정자의 출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런종섭’(run과 이종섭의 조어)이라고 불릴 만 하다”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이 출국금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보고 받은 것도 없었나.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이 도주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외교부·공수처의 방조와 공모가 없었다면 어떻게 단 6일 만에 속전속결로 범죄 피의자가 해외로 도망갈 수 있었겠는가”라며 “호주로 도망간 ‘범죄 피의자 이종섭’을 당장 소환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종섭 내정자 임명과 출국금지 조치 해제 등에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피의자를 노골적으로 도피시키는 일은 뻔뻔하고 과렴치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원론적인 발언을 할 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호주란 나라가 국방 관련 현안이 많은 나라인 걸로 안다”면서 “대통령실에서 그런 성질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홍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그렇게 핵심적인 중요한 피의자라면 6개월 동안 한 번도 왜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겠느냐”며 “이종섭 전 장관께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에 출석했을 때는 특검인을 제외하라는 것을 지시한 적이 확실히 없다고 말했던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국민께서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고 옹호했다.

이에 대해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총선이 한달 남았으니 변수는 많겠지만, 호주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건은 (여론 변화의)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재명·이해찬·김부겸 ‘3인 선대위’ 체제로

김부겸 “당에 다시 돌아온 이유尹 정부 심판·입법부 지키러 친명·친문 이런 말 내버려야”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을 대비해 11일 이재명 대표-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3인 체제’로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통합선대위 구성에 핵심이 되는 인물은 김부겸 전 총리였다. 민주당에는 지역구 선거도 뛰어야 하는 이 대표와, 나이가 많아 적극적인 선거 지원이 어려운 이해찬 전 대표를 대신해 원외 인사로 선거를 진두지휘할 인물이 필요했다.

다만,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의 공천과정에서 나타난 비이재명계 ‘공천 배제’ 현상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 대표에게 통합을 요구하며 각을 세운 바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은 김 전 총리에게 선대위원장 직을 제안했고 김 전 총리는 고심 끝에 11일 오후 국회에서 수락 기자회견을 하며 “한때 정치를 떠났던 제가, 다시 당에 돌아온 이유는 하나다. 무능력·무책임·무비전, 3무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입법부라는 최후의 보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제가 선대위 합류에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은 우리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때서운 평가 때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기자회견을 마친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원하시는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는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셨다. 무엇보다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명이니 친문이니,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 내 버려야. 우리는 다 민주당”이라며 “작은 차이와 다툼을 내려놓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의 수락 회견 이후 김민석

당 상황실장은 당이 꾸린 통합선대위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총선 선거대책위원회의 명칭은 ‘정권 심판, 국민 승리’ 선대위”라며 “선대위의 성격은 민주당에 요구되는 혁신과 통합, 그리고 국민참여, 이번 총선 성격인 심판이라는 네 가지 성격을 담은 구성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경기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과 서울 서초을에 출마하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 유성구을에 출마하는 당의 영입인재 황정아 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는 공영운 현대차 전 사장,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자 경기 하남을에 출마하는 김용만 대한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이소영 민주당 의원, 당에서 검찰 개혁 업무를 담당했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맡는다.

이날 밝힌 공동선대위원장은 총 8명인데, 국민참여위원회위원장이인선되면 공동선대위원장 직을 맡게 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통합선대위 구성에 이어 당의 공천 갈등으로 최고위 보이콧을 선언했던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 복귀해 ‘원팀’의 모양새를 갖춰가는 중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한동훈 “민주당, 이번 총선공약 반미인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 후보 전지에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배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야권 연합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 비례대표 1번 후보에 전지에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배치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은 반미인가”라고 비판했다. 전 운영위원은 과거 반미단체로 알려진 ‘겨레하나’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례대표 1번 후보의 경우에는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던 단체의 대표 출신”이라며 “비례대표 1번이라는 것은 그 정치 세력의 방향성과 정책과 공약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존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묻고 싶다”며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은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인가. 반미인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인사가 비례대표 1번으로 선정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고 국민 앞에 설명해주길 바란다.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회의 중간에도 재차 더불어민주당연합의 비례대표 선출을 비판했다. 그는 김경울 비대위원의 발언이 끝난 후 “색깔론을 가지고 접근할 생각은 없다. 제가 그런 걸 싫어한다”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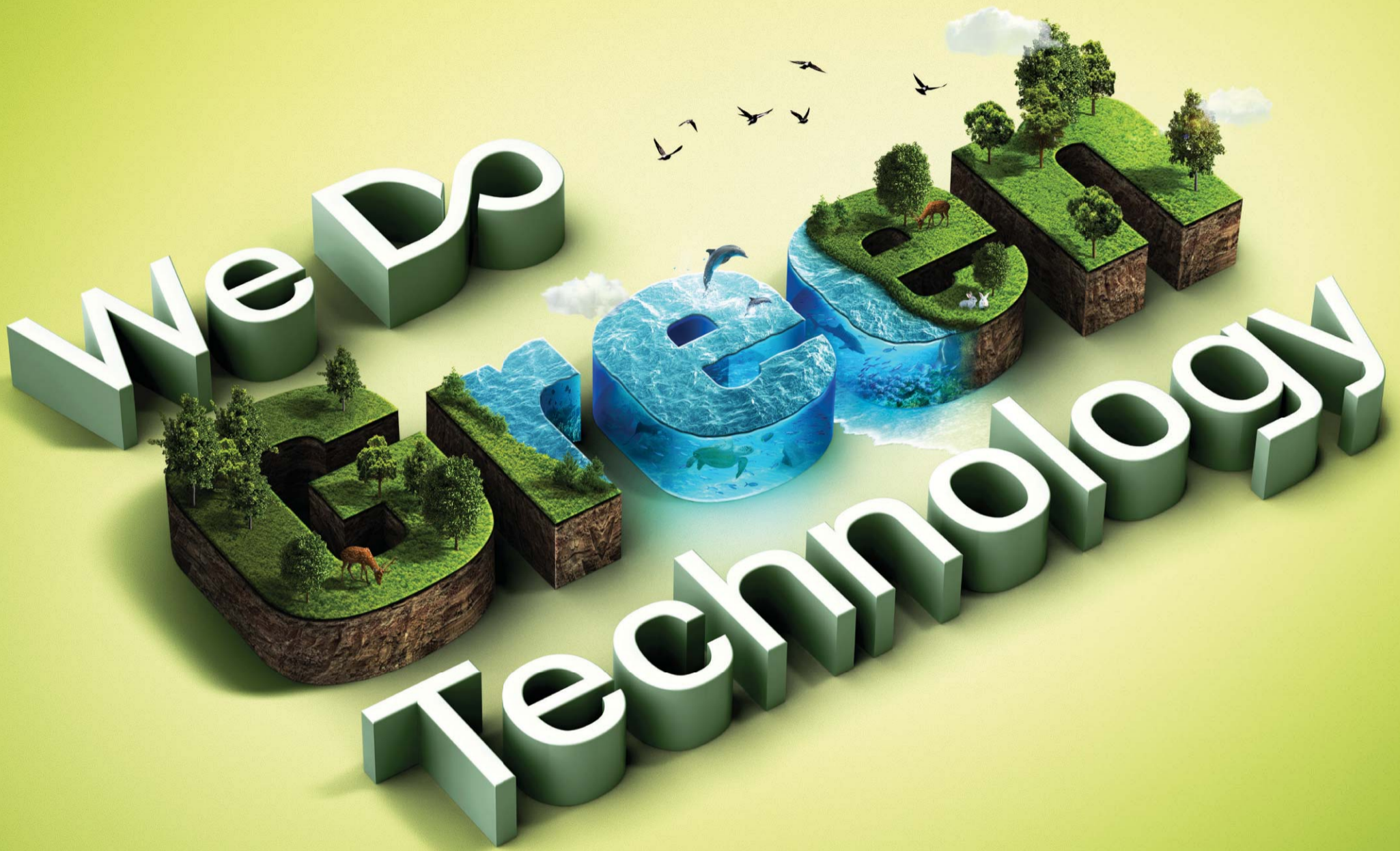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러니 여러분이 이 단체(겨레하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간 활동들과 북한 쪽하고 초청이라든가 주고받은 문건을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다. 민주당 홈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아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비례대표 순번을) 준 거지, 우리는 종북 안 할 것”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우리는 종북할 거다’ 이 둘 중에 다른 건 있을 수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서예진 기자



건강한 지구를 위한 첨단 기술의 노력

SK하이닉스가 앞장서겠습니다

친환경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SCC* 멤버 가입
 유해물질 관리 역량을 인정하는 IECQ QC 080000* 인증 획득
 탄소배출 저감 제품군에 수여하는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
 반도체 폐기물 감축을 실현하는 SSD 재활용 활동
 멸종 위기 생물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경연 개최

*SCC (Semiconductor Climate Consortium) :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결성된 글로벌 협의체
 *IECQ QC 080000 :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의해 발효된 유해물질 관리 국제표준

대형 화재에도 매수 문의 잠잠, 호가도 하락세

GTX 노선 따라가보니

창동역

2021년 말 이후 집값 계속 떨어져 서울아레나 공사 중단·재개 미정

인근 단지 정밀안전진단 신청 중 소형 평수 높은 분담금 예상 재건축 사업 진행 난항 겪을 듯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발표에도 창동 지역 집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경기 평택이나 김포 등 일부 부동산에서 호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와 대조적이다.”

최근 찾아간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자리 잡은 ‘동아정솔’ 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난해 단지 인근에 있는 서울아레나의 공사가 중단됐다. 사업 재개가 힘들 것이라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며 “지난 2021년 말 최고가격을 찍은 이후 현재 절반가량 하락한 가격에 매물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4호선 창동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동아정솔은 지난 1997년 3월 입주를 시작했다. 창동의 대장주로 불리는 단지는 18개동, 지상 최고 24층, 전용면적 59~134㎡, 총 1981세대다.

동아정솔 바로 앞에 위치한 서울아레나는 연면적 11만9096㎡ 부지에 1만8269석 규모, 최대 2만8000명까지 수용



공사가 중단된 '서울아레나' 현장.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자리 잡은 '동아정솔'.

/김대환 기자

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아레나공연장을 비롯해 중형공연장, 대중음악지원시설, 영화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3120억원 규모며, 민간투자자로 진행된다.

서울아레나는 지난해 11월 착공을 시작하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개월 만에 카카오의 요청으로 착공식이 연기되며 공사는 중단됐다. 카카오가 오는 2027년 완공 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서울시에 상당한 지체배상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GTX-C노선, 복합환승센터 등 화재에도 호가를 올리거나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시장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주민들의 경우 GTX-

C노선으로 강남과 광화문,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GTX-C노선을 기존 양주 덕정~수원 노선을 연장해 상당으로는 덕정에서 동두천(9.6km)까지, 하단으로는 수원에서 아산(59.9km)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C노선이 개통되면 동두천~삼성역 30분, 수원~삼성역 27분으로 수도권 남북부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게 된다. 특히, 창동역~삼성역까지 약 20분대로 단축돼 도봉구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가 나왔다”면서 “정밀안전

진단이 통과되더라도 중 소형 평수의 높은 분담금으로 재건축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했다. 전주(-0.02%)와 같은 하락세를 보이며 1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도봉구(-0.05%→-0.06%)는 쌍문·도봉동 구축 위주로 하락세가 확대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아정솔’은 지난 2월 전용면적 84㎡가 8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거래가격(8억8000만원) 대비 4000만원 떨어졌다. ‘동아그린’의 경우 지난 1월 전용면적 59㎡가 5억9500만원에 거래되면서, 1개월 만에 2000만원 떨어졌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화재

장기보험 상병심사 ‘장기U’ 특허 획득

삼성화재가 장기보험 상병심사 시스템 특허를 획득했다.

◆ 머신러닝 기반 인수 가능 최적 담보 찾기

삼성화재는 자사 장기보험 상병심사 시스템 ‘장기U’가 특허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장기U 시스템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피보험자의 질병을 고려해 보험사가 인수할 수 있는 최적의 담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는다.

장기U는 고객이 보험금 청구 이력 이 있더라도 AI를 통해 자동 심사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은 보험금 청구 이력과 무관하게 빠른 심사 과정을 거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

우울증 등 산모 위한 MY FAM 알파맘 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여성을 위한 보험을 선보였다.

◆ 산후우울증 최초 1회 30만원 보장

롯데손해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산후우울증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아맘’을 위한 ‘MY FAM 알파맘 보험’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산후우울증, 관절통 등 출산 후 산모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병과 상해만을 별도로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을 출시한 것은 업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문의로부터 산후우울증 진단과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엔 최초 1회 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VDT증후군(누적의상성 질환) 진단을 받고 수술을 진행할 때 보험계약일로부터 수술 시점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50만원, 1년 이상일 경우엔 100만원(수술 1회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푸본현대생명

연금 더 오래 받는 MAX UP 연금보험

푸본현대생명이 새로운 연금보험을 출시했다.

◆ 금리 하락 시 최저보증이율 적용

푸본현대생명은 연금개시 후 종신토록 길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MAX UP 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MAX UP 연금보험은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다.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다.

연금액강화형은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액강화 보너스’가 적립돼 일반연금형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액강화 보너스는 유지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혜택이 있다. 금리 인하 시에도 확정된 보너스금액을 제공한다. /김주형 기자 gh471@

KB손보, 양성평등 조직문화 내재화 나서

‘제2회 KB WE Story 컨퍼런스’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등 진행

KB손해보험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아트홀에서 ‘제2회 KB WE Story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컨퍼런스 행사는 올해로 116주년을 맞이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했다. 여성 직원의 커리어 성장과 ESG관점 성별 다양성 이해 기반 양성평등 조직문화 내재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최했다.

‘여성의 커리어 성장과 네트워킹을 위한 멘토링’이라는 주제로 1부 명사 특강, 2부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3부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KB 로즈 어워드(Rose Award) 시상식과 KB WISH 멘토단 출범식도 함께 진행했다.

KB Rose Award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여성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Rose(장미)’를 명칭으로 사용했다. KB손해보험 전 임직원이 양성평등 조직문화에 적극 기여한 직원을 각자 추천한 뒤 투표를 통해 남·여 각 1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남자 수상자는 성별 다양성을 존중하고 몰입양면으로 주변 동료들을 지원하는 직원으로 김한용 장기부상보상센터장이 선정됐다. 여자 수상자는 꾸준한 성실함으로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후배 육성에 노력하는 직원으로 김미영 자동차업무파트대리가 선정됐다.

또한 여성 직원의 경력개발, 리더역량개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인 ‘KB WISH 멘토단’이 새롭게 출범했다. 앞으로 약 4개월간 멘토와 멘티 각 20명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차별과 불공정의 관습을 과감히 제거하고 KB손해보험이 지향하는 가치를 몸소 실천해 준 직원들의 공로를 치하한다”며 “임직원 모두가 상호 존중, 배려를 바탕으로 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양성평등 조직문화에 적극 기여한 직원으로 선정돼 ‘KB 로즈 어워드(Rose Award)’를 수상한 김한용 센터장(왼쪽 첫번째)과 김미영 대리(왼쪽 세번째),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손해보험



DL건설, 전 현장 품질강화 캠페인

DL건설은 전 현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강화 캠페인인 ‘하이 퀄리티 페스티벌(High Quality Festival)’을 전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자체 품질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 피치피에프이 데이터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품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DL건설

모바일현금카드 ATM 이용 21배 증가

올해 일 평균 536건 이용

현금카드 없이 모바일로 ATM에서 입출금 할 수 있는 ‘모바일현금카드 ATM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모바일현금카드 ATM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올해 일평균 536건으로 개시전(2023.1~11월)과 비교해 21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

하기 위해 모바일 현금카드 ATM 입출금 서비스를 안드로이드폰에서 비(非)안드로이드폰으로 확대하고, QR코드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QR코드 방식은 은행 ATM에서 모바일현금카드 선택 및 QR코드 생성을 누른 뒤, 본인의 휴대폰에서 모바일현금카드 앱을 열어 ATM 화면에 나타난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단, QR코드 방식은 이용전 모바일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 한 뒤 은행계좌와 연계해야 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조선업계, 카타르서 ‘잭팟’... 잠수함·LNG선 등 수주전 치열

카타르에너지 추가수주 예의주시
폴란드·필리핀 등서 글로벌 경쟁
현대중·한화오션, KDDX 갈등 격화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연일 최대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방산 1위 한화오션은 한 치 양보 없는 승부를 예고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부고 법정공방을 펼치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 폴란드 ORKA(오르카) 잠수함 프로젝트, 필리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 해군은 노후 잠수함 교체용으로 장거리 3000톤급 신형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기 위한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추진하고 있다. 잠수함 획득 비용은 1척에 2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수명 주기 비용, 교육 훈련까지 더해 총 600억 달러(한화 약 79조 6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ORKA(오르카) 사업은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이다. 폴란드는 22억5000만 유로(한화 약 3조2559억 원) 정도에 장거리 유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모습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전경.

/한화오션

2~3척 도입을 예고 하고 있다. 지난해 잠수함 도입을 위한 입찰을 진행해 총 11개사가 참여 의사를 전했다. 올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필리핀도 잠수함 2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요구 제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업 규모는 약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폴란드 ORKA 프로젝트를 위해 국내·외 방산기업들과 잇단 협력을 공개했다. HD현대중공업도 발콥사와 해외 수출을 위한 잠수함 개발을 공동 추진한다. 잠수함의 통합

전투체계는 LIG넥스원이 맡는다. 이달 HD현대중공업은 LIG넥스원과 ‘수출형 잠수함 독자모델 개발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화오션은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이 적극 나서 한화의 육·해·공 방산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폴란드에서 직접 한화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III 배치(Batch)-II’의 우수한 잠항 능력과 다목적 수직 발사관 등 기술력을 알렸다. 한화오션은 9000억원을 투자해 유럽·북미 등 해외 방산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국내 조선 3사는 카타르에너지의 추가 수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카타르에너지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차 프로젝트에서 잭팟을 터트렸다. 지난해 HD한국조선해양이 17척을 계약한 뒤 올해 들어 삼성중공업이 15척, 한화오션이 12척을 수주하며 예상했던 40척보다 많은 44척의 수주 계약을 따냈다. 3사 합산 계약금액은 당초 예상했던 12조원보다 높을 전망이다.

여기에 카타르에너지가 LNG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카타르에너지는 2030년까지 LNG 연간생산량을 현재 대비 85% 늘릴 계획이다. 연간 LNG 생산량은 현재 7700만톤에서 2030년 1억

4200만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사업을 두고 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방위사업청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양측의 갈등은 한화오션이 지난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하면서 더욱 격화하고 있다. 두 조선업체의 갈등은 재계 순위 7위인 한화그룹과 9위인 HD현대 간의 싸움으로도 번져가는 모습이다. 여기에도 김동관 한화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비슷한 연배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가 부회장들의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대처럼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비스포크 AI콤보’ 신제품 출시 간담회

“세탁·건조는 기본... AI로 초연결 경험 선사”

날씨 확인 등 편의기능 제공
AI가전 선두기업 위상 공고히

말하고 생각하는 세탁·건조기가 등장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비스포크 AI 콤보’다. 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콤보를 시작으로 인공지능(AI) 가전 포트폴리오 확장과 삼성전자의 비전 ‘모두를 위한 AI: 일상 속 똑똑한 초연결 경험’을 현실화 한다.

삼성전자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 출시 간담회를 진행했다. 휴대폰인 갤럭시를 넘어 세탁·건조기까지 인공지능(AI)을 탑재하며 AI 가전 시장 선점하고 본격적인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고성능 칩과 타이젠 운영체제(OS)를 탑재하고 사용 편의성을 위한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갖췄다. 기본적인 세탁·건조 기능은 물론 생활 편의기능까지 모두 제공한다.

이무형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이젠 세탁기로 전화를 받고 날씨까지 확인하는 시대가 온다”며 “AI 챗봇에 쓰는 고성능 칩으로 스마트싱스와 연결돼 냉장고와 TV, 환관문까지 콘트롤 할 수 있으며 빅스비로 음성제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탁·건조를 위한 지시부터 “오늘



11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삼성전자 DA사업부 CX팀장 이무형 부사장이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의 혁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제품 /뉴스

의 날씨?”와 같은 일상 명령어도 알아듣고 응답한다.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스크린 에브리웨어’ 전략의 일환으로 세탁기와 냉장고, TV 등 가전끼리 모두 기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휴대폰 갤럭시와도 잇는다는 구

상이다.

이 부사장은 “AI를 위한 고성능 칩이 타 제품까지 확산하도록 기술 개발 중”이라며 “갤럭시 S24와 연결돼 세탁기에서 갤럭시의 번역기능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LLM(거대언어모델)도 개발 중으로 추후 업데이트해 탑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AI 기능 탑재와 연계 가전 활용 외에도 일체형 세탁·건조기로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로써 확실한 세탁과 건조 기능을 갖췄다.

2월 출시한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용량 25kg, 건조용량 15kg으로 일체형 제품 중 국내 최대 건조 용량을 자랑한다. 출시 열흘 만에 3000대 이상 판매고를 올렸다. 큰 용량으로 킨 사이즈이불을 건조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고, 셔츠 17장에 해당하는 분량(3kg)을 99분만에 세탁하고 보송보송하게 말릴 수 있다.

이 부사장은 “3년의 연구개발 끝에 마침내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비스포크 AI 콤보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콤보 흥행을 시작으로 올해 비스포크 제트 AI, 비스포크 제트 AI 등 AI 기능이 강화된 제품을 국내 시장에 선보이며 ‘AI가전=삼성’이라는 공식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우디 발전소 사업 참여

1500억 규모 기자재 공급 계약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사우디 최대 복합 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발주처인 셉코3(SEPCO-3)과 사우디아라비아 타이바 1·카심1 복합화력발전소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타이바1 복합화력발전소와 카심1 복합화력발전소에 650MW급 스팀터빈, 발전기를 1기씩 공급한다. 계약금액은 약 1500억원 수준이다.

타이바1·카심1 복합화력발전소는 제다 북부 약 200km와 리야드 북서쪽 약 200km에 각각 위치한다. 두 발전소 모두 1800MW급으로 2027년까지 건설된다. 디벨로퍼(개발사업자)는 아크아

파워(ACWA Power)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SEC) 컨소시엄이 수행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셉코3은 EPC(설계·조달·시공)로 사업에 참여한다.

손승우 두산에너지빌리티 파워서비스 BG장은 “국내는 물론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과 아시아 등 해외 가스발전 시장에서도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향후 5년간 사우디에서 약 15GW 이상의 복합화력발전소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LG전자, 밀라노서 고효율 공조 솔루션 뽐내

‘모스트라 콘베노 엑스포’ 참가

LG전자가 현지시간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모스트라 콘베노 엑스포(MCE) 2024’에서 다양한 공간에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고효율 공조 솔루션을 선보인다.

MCE는 스마트 빌딩과 주거 공간의 HVAC+R(Heating·Ventilation·Air Conditioning·Refrigeration),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분야를

전문으로 2년에 한번 열리는 국제적 행사다. 올해는 53개국 15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LG전자는 이번 MCE 2024의 ‘주거용 솔루션존’과 ‘상업용 솔루션존’ 두 공간에 각각 부스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유럽 가정용 냉난방 시장을 겨냥한 벽걸이 에어컨 신제품 ‘듀얼쿨(DUAL COOL)’을 최초로 공개한다.

/김서현 기자

단통법 개정안... 이통사 옮기고, 번호이동해야 '최대 혜택'

추가 쿠폰 등 '전환지원금' 신설
번호이동 가입자 최대 50만원 혜택
단말기 불필요한 교체수요 발생 우려
고가 요금제 중심 지원 집중 가능성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번호이동 가입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통사를 이동하지 않는 가입자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교체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공시지원금 이외에 제공하는 추가 혜택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의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도입되면 이통사를



지난 1월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뉴시스

옮기는 번호이동 고객은 단말기 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위약금이나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한 추가 쿠폰 등을 포함한 전환지원금이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공시지원금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던 공시지원금 내용과 관련된 정보 변경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통사를 이동하고 싶지 않은 고객에 대한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불필요한 이통사 전환과 교체 수요를 자극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특히 전환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단기간에 번호를 여러 번 갈아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번호이동 제한 기간인 3개월만 지나면 전환지원금이 지급돼 무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통사간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고가 요금제에 가입자에만 지원이 쏠릴 수 있다. 이밖에도 알뜰폰 시장이 위축되

면서 대표 저가 요금제인 '0 요금제'도 사라지고 있다. 이통사가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알뜰폰에 대한 '사업자 보조금'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알뜰폰요금제 비교 사이트 '알뜰폰 hub'에 따르면 이날 기준 '0원 요금제'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관련 요금제는 80여 종에 달했지만 올 초부터는 아예 사라진 셈이다.

이와 관련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전환지원금 관련) 고시를 오는 13일 방통위에서 의결하고 1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인데, 현장 얘기를 귀담아듣고 정책 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사 3사 대표들이 만나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논의한다. 11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과 회동한다.

김 위원장과 이통3사 대표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U+

유심 원칩, 플라스틱 줄인다

LG유플러스가 공용 유심 '원칩'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절반으로 줄이고 안내문과 배송봉투를 친환경 소재로 변경하며 고객과 함께 ESG 경영 실천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유심은 스마트폰에 끼워 쓰는 일종의 IC카드로, 가입자 식별 정보를 탑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021년 U+망을 사용하는 40여개 알뜰폰 사업자 요금제는 물론,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닷컴'의 다이렉트 요금제, 통신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너겟'의 요금제를 개통할 수 있는 공용 유심을 선보였다. 편의성으로 원칩 판매량은 2022년 9만 4600여건에서 2023년 28만여건으로 1년 만에 약 3배 증가했다.

원칩 판매량의 증가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원칩의 유심 플레이트를 절반으로 줄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낮췄다. 원칩 이용 안내문과 배송 봉투도 친환경 FSC 인증을 받은 소재로 변경했다. FSC 인증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과 지구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국제산림관리협회에서 만든 국제 인증 제도다.

/구남영 기자

팀네이버, 클라우드·AI 사업화 박차

HD현대와 디지털 전화 박차 조선·해운 영역 신사업 기회 발굴

팀네이버와 HD현대 머리를 맞대고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팀네이버는 HD현대와 세종시에 위치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에서 '클라우드 전환 및 AI 사업화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HD현대의 클라우드 전환 및 네이버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활용 지원 ▲클라우드 사업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HD현대마린솔루션의 해양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사업 추

진 등을 공동 진행한다.

먼저 네이버는 HD현대가 보유한 조선·해양 분야 데이터베이스(DB)에 네이버의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를 적용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조선·해운 영역에서의 다양한 신사업 기회도 발굴할 계획으로,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선·해운 영역에 클라우드·AI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양사는 전 세계 선박 운항 데이터를 수집해 선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 종합 데이터 플랫

폼인 '메타오션데이터 클라우드'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해 기술검증까지 완료했으며 올 상반기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양사는 조선·해운 분야에 클라우드와 AI 기술을 활용한 '메타오션데이터 클라우드'를 출시하는 등 다양한 신사업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선박 탄소집약도(CII) 관리부터 항해 중인 선박들의 운영·관리 전반을 클라우드 상에서 구현하고, 솔루션과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HD현대마린솔루션의 선박 및 엔진 A/S 관련 고객 문의 및 응대를 위한



(왼쪽부터) 김정혁 HD현대마린솔루션 경영지원부 상무,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11일 세종시 네이버데이터센터에서 클라우드 전환 및 AI 사업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네이버

AI 챗봇 개발에도 네이버의 AI 기술을 활용, 보다 상세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oseoul.co.kr

LG전자

TV 스피커 동시 활용 AI 사운드바 사전예약

LG전자가 11일부터 20일까지 인공지능(AI) 탑재 2024년형 LG 사운드바 사전예약을 받는다. 국내 온라인 브랜드샵을 통해 사전 예약을 통해 최상위 모델인 'S95TR'을 구매한 고객 100명에게는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공식 출시일은 이달 말 북미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출시한 2024년형 LG 사운드바 신제품은 LG 사운드바 신제품은 사운드바와 TV 스피커 동시 활용하는 와우캐스트(WOWCAST) 기능을 담았다. AI를 기반으로 시청 위치, 공간 구조, 콘텐츠 장르 등을 고려해 정교한 입체 음향도 제공한다.

대표 모델인 'S95TR'은 세계 최초로 업파이어링(Up-firing) 스피커 3개를 탑재한 본체를 포함해 ▲저음을 내는 '서브우퍼' ▲입체음향을 내는 '리어 스피커' 등 총 5개의 채널(9.1.5)을 지원한다. 최대 출력은 810와트(W)다.

/김서현 기자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풍부한 입체 사운드는 물론, 프리미엄 LG TV에 기능과 디자인을 꼭 갖춘 2024년형 LG 사운드바를 출시한다. 사진은 LG 사운드바 중 최대 채널(9.1.5)을 지원하는 'S95TR'.

/LG전자

K-배터리, 기술개발 핵심 과제 '고성능·저가격·고안전'

전기차 배터리 혁신 기술 세미나 배터리 제어·안전 기술 등 주제

국제적 환경 규제 강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로써 전기차는 필수적인 선택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차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배터리 기술 개발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다.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서 주행거리부터 화재로부터 안전성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배터리 관련 기술 개발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11일 한국미래기술교육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배터리 2024' 행사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혁신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배터리 산업 전망 및 핵심 소재 개발 이슈, 배터리 제어 및 안전 기술 등을 주제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차전지PD는 "전기차가 나온 이유는 결국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때문에 배터리 산업 혁신 전략 3가지 중 친환경 기술을 보유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나 소재를 만드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감축,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부

산물이나 폐기물들을 줄이는 것이 미래 글로벌 배터리 이슈의 키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사용기한이 만료된 폐배터리 처리도 중요한 이슈다. 산업부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등의 기술 개발을 통해 배터리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를 2030년까지 25%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차전지 소재업체들이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송정훈 포스코홀딩스미래기술연구원 박사는 이차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해 에너지밀도와 주행거리를 늘리고 충전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송 박사는 "에너지밀도는 2023년 250~300Wh/kg에서 2030년 350Wh/kg으로 높여야 한다"라며 "주행거리는 500km에서 600km로 늘리고, 충전속도는 20분 이내에서 15분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안전과 관련 해선 이차전지 모듈, 지능형 제어기술 확보를 통해 발화 지연을 넘어 자가진단과 자가치유가 가능한 이차전지 제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둘러싼 화재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홍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용인소방서 소방위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폭발"이라며 "현재 국내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폭발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안전성 문제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차현정 기자 hyeon@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등록:** <https://onoffmix.com/event/293926>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 **문의:** 오가노이드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주최: metro경제

후원: 충청북도
CHUNGCHONGBUK-DO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 VP Tea 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4:00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섹션1	14:00~15:4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Prof 강연2: Ryuichi Okamoto Prof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브레이크타임	15:40~15:5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5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임승원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등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폐회	17:00	

정부·행동주의펀드 압박... 기업, 자사주 매입·소각 '속도'

삼성물산 올해 1조 규모 자사주 소각 SK이노, 기아, KT&G 등도 결정 4대 금융지주, 예정 규모 9080억 이달 주총, 역대급 주주환원 검토

기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강조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데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사 21개사(지난달 12일 기준)가 3조3148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934억원)에 비하면 8.4배 수준이다.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은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기업이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면서 기존 주식의 가



/유도이미지

치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다.

최근 삼성물산은 올해 1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힌 기업 중 가장 큰 규모다. SK이노베이션은 7936억원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이는 창사 이래 첫 자사주 소각이다. 기아(5000억

원), KT&G(3150억원), SK텔레콤(2000억원), 금호석유화학(1290억원) 등도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다.

금융지주들도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예정된 자사주 소각 규모는 현재 9080억원에 달한다.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KB금융 3200억원, 하나금융 3000억원, 신한금융 1500억원, 우리금융 1380억원 순이다.

시장에선 기업들의 주주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주주총회 시즌은 역대급 주주환원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중장기 주주환원 목표와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단계적 확대와 기업, 자본시장의 노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연결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자사주 보유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은 이사회가 적정성을 검토해 사업보고서에 보유 사유, 추가매입 및 소각·매각 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

령 등을 개정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사주 소각 규모가 4조7626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자사주 소각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자사주 제도 개선 등의 핵심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근절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며 이런 기초가 결국에는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정책 확대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환원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 배당확대와 더불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상승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사주제도 개선의 타겟도 이러한 기업들에 집중돼 있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금리인하 머지 않아”... 채권·회사채 선호 ‘집중’

7일간 채권형 펀드 설정액 3831억 ↑ 연준, 금리인하 비둘기파적 발언 주목 회사채 순매수액, 전년비 57.8%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채권 막차'에 탑승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지속돼 온 채권투자 열풍과 공격적인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이 맞물리면서 국내보다 회사채에 대한 선호도 높아진 모습이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공모 펀드들 가운데 국내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이 3831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무려 3조6765억원이 몰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방증했다. 반면, 최근 일주일 간 국내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3815억원 감소해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연초부터 현재

〈국내 펀드 설정액 증감 추이 (10억원 이상 공모펀드 기준)〉

펀드수	설정액	순자산	1일				연초이후	
			1일	1주	1개월	3개월		
국내주식형	1,107	478,935	679,179	522	-3,815	-15,289	-10,625	5,947
국내채권형	324	444,914	461,443	1,119	3,831	19,713	29,591	36,765

/에프앤가이드

까지로 보면 5947억원의 설정액이 유입됐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점점 감소세로 변한 모습이다.

올해 들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지지개를 피면서 채권에 관심이 쏠리자 '채권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장은 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진전이 있다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고, 또 시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 시점에서 멀리 있지 않다(we're not far from it)"고 비둘기

파적 발언을 해 주목된다.

앞서 시장에서는 늦어도 2분기 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금리인하가 머지 않아'라는 발언은 6월 금리 인하 확률을 높이는 계기가 됐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올해 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 동반 하향 조정도 ECB도 6월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음을 강하게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

~2월 개인투자자들의 회사채 순매수액(발행액-상환액)은 총 2조3678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 1조271억을 순매수한 데 이어 2월에도 1조3407억원을 담은 것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8%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의 컨센서스로 굳어진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심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채권 개미들의 움직임을 보면 국내에서 회사채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채권 순매수 규모 비중을 보면 국내 비중이 31%, 회사채는 27%였지만 올해는 회사채가 30%, 국내가 27.2%로 역전된 모습을 보였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급등 위험이 적거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을 시에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국내보다 금리가 더 높은 회사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투자

가 몰리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같은 경우에는 7월과 10월쯤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미국은 6월부터 2~3차례 정도의 인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채권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2월 중순 이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비중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며 "2월 고용지표 이후 골디락스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준도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발표될 점도표에서는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인하 전망은 유지하겠지만, 올해 금리인하 횟수가 작년 12월 점도표에서 밝힌 3차례보다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하반기에나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고3년이자 3.3%를 하회하면서 레벨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한국거래소는 정은보 이사장이 11일부터 13일까지 주요국 글로벌 거래소, 투자기관 및 지수산출기관 등의 최고위급 면담을 위해 출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정부와 거래소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등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FIA 국제 파생상품 컨퍼런스'에 참가해 주요 거래소 경영진 등과의 면담을 통해 협력사업 논의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컨퍼런스는 국제파생상품협회(FIA)가 매년 3월 주관하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파생상품 행사로 주요 거래소 등 약 430개 기관이 참가한다. /신하은 기자

차기 대표이사 후보에 윤병운 부사장 내정

NH투자증권

주주총회 거쳐 사내이사 선임 예정

NH투자증권이 차기 대표이사로 윤병운 NH투자증권 부사장(사진)을 내정했다.

11일 NH투자증권은 이날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임추위)·이사회를 열어 윤 부사장을 선임 사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 이에 따라 윤 부사장은 오는 27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거쳐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윤 부사장은 1967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한 후 1993년 LG투자증권 시절에 입사해 현재까지 자리를 지켰다. 정영채 현 NH투자증권 대표와 오랜 기간동안 호흡을 맞추며 NH투자증

권투자은행(IB)강자로 거듭나도록 인문로 꼽히고 있다. 윤 부사장은 NH투자증권에서 20년간 커리어, IB 영업을 맡아

왔다. 앞서 정영채 대표가 이달을 끝으로 용퇴의사를 밝히자 임추위에서 유찬형 농협중앙회 전 부회장, 윤병운 부사장, 사재훈 전 삼성증권 부사장을 차기 대표 후보로 압축한 바 있다. 이후 후임 대표와 관련해 농협 내부에서 마찰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부사장이 대표이사 단독 후보로 내정되면서 중앙회와 금융지주 간 갈등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진다. /신하은 기자



미래에셋 'TIGER ETF', 순자산 50兆 돌파

184종 합계... 시장 진출 18년 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상장지수펀드(ETF) 총 순자산 규모가 50조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종가 기준 TIGER ETF 184종의 순자산 합계는 50조 226억원이다. 2006년 TIGER ETF가 국내 ETF 시장에 진출한 지 18년 만이다.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를 비롯해 국내 상장된 1조원 이상 대형 ETF 27종 가운데 11종이 TIGER ETF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트렌드를 선도하는 다양한 혁신성장 테마 ETF를 선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TIGER 미

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ETF', 'TIGER 미국테크TOP10 INDX ETF' 등 특히 주식형 ETF에서 두각을 보여왔다. 2월 말 기준 국내 주식형 TIGER ETF 순자산 규모는 총 22조 5605억원으로 국내 운용사 중 1위다.

최근에는 차별화된 상품을 발굴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며 기존 금리형 ETF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 목표한 인컴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는 'TIGER 미국+%프리미엄 ETF 시리즈', 또한 'TIGER 미국테크 TOP10+10%프리미엄 ETF' 등이 대표적이다. /원관희 기자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지원 'T커머스' 추진... 업계는 포화 '고전'

홈쇼핑 통해 데이터홈쇼핑 계획
중 알리·테무 등 해외이커머스 공세
SK스토아 등 5개 채널 실적 하락세

홈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데이터홈쇼핑(T커머스)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T커머스만을 전문으로 하는 5개 채널 대부분이 추정치 기준으로 매출,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등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온·오프라인 기업들의 경쟁에 더해 최근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서비스까지 한국 시장에 가세해 무한 공습을 이어가는 등 시장이 격화되면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T커머스 단독 사업자 가운데 SK스토아, 쇼핑엔티, W쇼핑이 모두 매출과 영업이익이 2022년에 비해 하락했다.

매출의 경우 SK스토아 3293억→3015억, 쇼핑엔티 1663억→1500억, W쇼핑 1403억→1130억원으로 각각 나뉘었다. T커머스 업계 상위인 SK스토아는 특히 영업이익이 115억원에서 지난

〈T커머스 사업자〉

/자료=각사

사업자	채널명	오픈시기	
T커머스 단독 사업자	KTH	K쇼핑	2012.8
	쇼핑엔티	쇼핑엔티	2013.10
	신세계티비쇼핑	신세계쇼핑	2015.1
	SK스토아	SK스토아	2015.1
	더블유쇼핑	W쇼핑	2015.8
TV홈쇼핑·T커머스 겸업 사업자	롯데홈쇼핑	롯데OneTV	2015.3
	현대홈쇼핑	현대플러스샵	2015.4
	CJ오쇼핑	CJ오쇼핑플러스	2015.5
	GS홈쇼핑	GS마이샵	2015.7
	NS홈쇼핑	NS샵플러스	2015.12

해엔 1억원으로 99% 가량 추락했다. 쇼핑엔티(101억→71억원)와 W쇼핑(113억→86억원)도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했다.

쇼핑엔티는 태광그룹 계열인 티알엔(tn), W쇼핑은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미디어윌홀딩스가 각각 대주주다.

KT알파도 매출이 3250억에서 2930억원으로 하락했다. 다만 2022년 당시 -100억원으로 적자였던 영업이익은 지난해엔 -72억원으로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신세계쇼핑의 경우 매출액(2725억→

2815억원)은 다소 늘었지만 영업이익(139억→129억원)은 추축했다.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T알파는 모두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T커머스 채널들이다.

TV홈쇼핑이나 T커머스의 '몸집'을 의미하는 취급액도 대부분의 데이터홈쇼핑에서 감소했다.

SK스토아는 2022년 당시 1조2330억원에서 지난해 1조1395억원으로 7.6% 빠졌다. KT알파(9800억→9460억원), 쇼핑엔티(4150억→4130억원)도 마찬가지다.

다만 신세계쇼핑(1조1890억→1조2229억원), W쇼핑(3710억→3810억원)은 취급액이 다소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홈쇼핑은 녹화를 통해 24시간 방송하고, 인기 제품의 경우 반복적으로 송출할 수 있는 등 탄력적이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유통채널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지난해도 일부를 제외한 송출수수료가 오르는 등 비용 구조 역시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3월, 4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홈쇼핑이 T커머스 사업권을 획득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더욱 확대하고 입점 중소기업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T커머스 사업 진출 가능성은 점점 무르익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홈쇼핑 지분 32.83%를 보유한 대주주다.

현재 7개 TV홈쇼핑 중에선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을 제외한 5개사가 모두 T커머스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OneTV(롯데홈쇼핑), 현대플러스샵(현대홈쇼핑), CJ오쇼핑플러스(CJ오쇼핑), GS마이샵(GS홈쇼핑), NS샵플러스(NS홈쇼핑)가 여기에 속한다.

중소기업계에선 중소기업 제품 판로 추가 개척, 기존 대기업 계열 홈쇼핑사 T커머스 보유 등의 이유를 들어 홈앤쇼핑의 T커머스 추가 진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지난해 4월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중소기업계와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미디어정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내놓은 연구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이 생기면 3년간 누적 1조원의 중소기업 매출증대 효과, 전후방 연관산업을 통해 매년 1379억원의 생산 및 683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1282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신분증 도용 청소년에 술 판매, 소상공인 구제

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협의회
3개법 시행령 등 내달까지 개정 완료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등도 개정 진행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도 처음 참석,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중기부 누리마루에서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11일 개최했다. 협의회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해 그동안 논의해 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우선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경우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



오영주 중소기업부 장관이 11일 세종 중소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약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체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도 참석했다.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노력과 현장에서 이뤄지기 시작

한 조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 중구는 경찰청 협업을 통해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청소년 신분증 검사 CCTV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전북자치도는 3월부터 청소년 주류 판매 소상공인에 대해 행정심판 심리기준을 완화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는 3월 중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고 고질적이었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중기부는 각 부처, 지자체와의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신규광고 공개

정준호·남보라씨 등 출연

중소기업중앙회가 '24년도 노란우산 홍보모델'로 선발된 가입자들이 함께한 노란우산 신규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1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광고는 '함께 써요, 노란우산!'과 '노란우산을 쓰다, 내 꿈을 쓰다!'라는 두 가지 콘셉트로 각각 2편씩 총 4편을 제작했다.

홍보대사 정준호·남보라씨와 함께 노란우산 홍보모델로 선발된 노란우산 가입자 및 가족들이 출연해 친근감을 더했다.

연기교사, 트로트가수, 약사, 운동강



중소기업중앙회가 새로 선보인 '노란우산' 신규 광고 캠페인 화면.

사 등 다양한 업종 20여명으로 구성된 노란우산 홍보모델은 노란우산 가입자·가족 1600여명 지원자 중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올 한 해 브랜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홍보 및 콘텐츠 영상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대중기협력재단, 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대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한다.

대중기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사업' 주관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기한은 오는 18일

까지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해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과 시장개척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관기업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

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 ▲유통망 연계 해외진출 지원 ▲해외거점 활용 현지화 및 판로개척 지원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은 문화 콘텐츠 기업이 주관기업으로서 한류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중소기업들은 행사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판촉 행사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현지진출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정책자금 사용목적 사전검증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의 사용 목적을 사전에 검증하는 '정책자금 사용용도 사전검증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창업·수출기업 지원, 청년 기업인 및 폐업자 재지원 등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해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목적의 사용 방지를 위해 대출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지원대상, 금리우대, 용자제한 예외 등의 혜택을 주는 청년창업창업자금, 재창업자금, 3억원을 초과하는 운전자금 등이 점검 대상이다. 지원기업이 경영 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 3년

간 정책자금 신규대출 지원 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올해 새로 도입한 사전검증 시스템은 국제청 홈텍스 및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연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4대 보험 가입정보 조회가 가능한 경우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실시간 증빙이 가능해 지원기업의 자금 사용용도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중진공 김문환 기업금융이사는 "기존에는 지원기업들이 대출금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과 제출자료 출처에 대한 검증 어려움 등이 있었다"며 "올해 신규 도입한 사전검증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과 정책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 늘었지만, 신규 3명 중 1명은 외국인

2월 고용보험 가입자 1522만명
1년 전 대비해 31만2000명 증가
고용허가 외국인 가입자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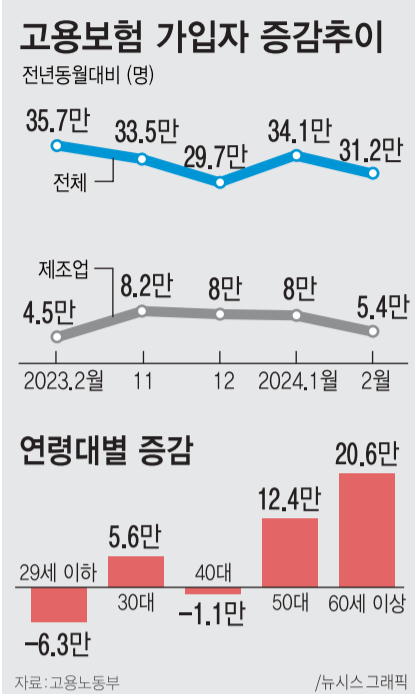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외국인 가입자 증가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 영향으로 20대와 40대 가입자는 각각 17개월, 4개월째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1만2000명(2.1%) 증가했다.

증가한 신규 가입자 중 외국인이 9만7000명으로 31.08%를 차지했다.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적용한 이후 지속 증가 추세다.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증가는 소폭에 그친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5%가 몰려있는 제조업의 가입자는 전년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했는데, 내국인 가입자만 보면 오히려 1만1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5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이같은 외국인 가입자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 분석과장은 "지난해 1월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외국인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올랐다"며 "그 기저 영향으로 올해 1월부터 증가 폭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동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령대별 가입 현황을 보면, 20대와 40대 가입자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 순감소는 17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40대 가입자 역시 지난달 1만1000명 감소하면서 작년 11월 첫 감소 전환 이후 4개월째 줄었다.

20대, 40대 가입자 감소 원인으로 인구감소 영향이 꼽힌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20대와 40대 인구는 각각 21만 8000명, 13만5000명 줄었다.

천 과장은 "가입자 수 감소는 인구 구조 변화 추세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며 "연령대별로 볼 때 고용률은 29세 이하나 30대, 40대 모두 증가하고 있어 취업자 감소가 인구 감소보다 적다"고 말했다. 해당 연령대 취업난이 심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50대와 60대 중장년층 가입자는 각각 12만4000명, 20만 6000명 증가했고, 30대도 5만6000명 늘었다.

다만, 채용 공고와 구직건수 모두 감소한 가운데, 채용 공고 감소폭이 더 컸다.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직건수는 33만3000명으로 7만9000명(-19.1%) 감소했는데, 신규 구인인원은 18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8만6000명(-31.7%) 줄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9만3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만4000명(13.3%) 감소했다. 업종별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 인원은 제조업(6만1000명), 정보통신업(4만5000명), 보건복지(3000명) 순이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6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7000명(1.1%) 증가했고, 지급액은 9619억원으로 758억원(8.5%) 늘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Z세대 5명 중 1명, 사회 가장 큰 불안 '범죄'

통계청, 세대별 사회안전·환경 의식 시니어세대 등 '신종질병' 가장 위험

이른바 Z세대는 '범죄'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소로 꼽았다. 반면 그 외 세대인 M세대와 X세대, 베이비붐세대, 시니어세대(고령층)는 모두 '신종질병'이 가장 위험하다고 봤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 의식-M세대'를 중심으로 세대간 비교분석'을 11일 발표했다. Z세대는 1995~2005년생, M세대는 1980~1994년생, X세대는 1964~1979년생, 베이비붐세대는 1955~1963년, 시니어세대는 1954년 이전 출생자를 가리킨다. 관련 조사는 지난 2022년 실시돼,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전 연령층에서 여전히 컸다.

Z세대의 5명 중 1명 가까이(18.9%)는 범죄를 사회의 선순위 불안 요인이라고 여긴다고 답했다. 이어 신종질병(17.3%), 경제적 위험(14.7%), 국가안보문제(13.0%) 순으로 조사됐다.

M세대는 신종질병(18.4%), 범죄(17.6%) 순이었다. 또 X세대는 신종질병(19.0%)과 경제적 위험(15.0%), 베이비붐세대는 신종질병(23.3%)과 안보(17.2%), 시니어세대의 경우, 신종질병(30.2%)과 안보(19.3%)를 많이 꼽은 데 반해 범죄(10.2%)와 경제적 위험(8.9%) 비중은 낮았다.

환경문제 불안감과 관련해서는 전(全) 세대에서 '미세먼지(평균 64.6%)'와 '기후변화(45.9%)'를 가장

많이 제시했다. 한편, M세대(47.8%)와 X세대(47.7%)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불안을 꼽은 비중이 높았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M세대가 59.6%로 가장 높았다. 10명 중 6명이 개인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그다음 베이비붐세대(55.4%), X세대(53.4%) 순으로 나타났다.

MZ세대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관심이 높아 일명 '엠제코 세대(MZ+ECO)'로도 불린다. 그러나 실제 환경오염 방지 노력에 있어서는 기성세대보다 실천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Z세대에서 미혼 비중이 큰 데다 소득수준은 비교적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베이비붐세대(91.8%)와 시니어세대(90.7%)가 높았다. Z세대(77.3%)와 M세대(81.9%)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역시 베이비붐세대(75.8%)와 시니어세대(73.4%)가 높은 반면, Z세대(52.5%)와 M세대(52.0%)에서 낮았다.

박상영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장은 "본 연구가 우리사회 곳곳에 열풍을 가져오고 있는 MZ세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 안전과 환경정책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러한 결과를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3월25일 발간)에 게재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내 동물용 의약품 업계 동남아 시장 개척 추진

국내 동물용 의약품 업계의 동남아 시장 개척이 적극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1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24 헬스 앤 뉴트리션 아시아'에 한국관을 구성해 한국 동물용 의약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은 중남미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각국 기업들이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우리 동물용 의약품 제조·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 박람회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동물용 의약품 등 동물용 건강 제품 전문 박람회로 올리는 세계 최대 사료 박람회인 '빅탐 아시아 2024'와 동시 개최되며, 전 세계 500여 개 업체의 참가가 예상된다.

박람회 운영기간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를 한국관으로 안내해 한국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농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의 동물 질병과 동물약품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13일에는 주요 수출국인 태국과 필리핀 정부 관계자를 섭외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강호동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취임 "농업 위기, 변화·혁신 절실"

농·축협 위상제고 사업 활성화 박차
미래경영·조직문화 혁신 등 당부
"회장, 후원자·보조자 역할 강조"

강호동 제25대 농협중앙회장이 11일 취임하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농업·농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변화하고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한국 농협의 지난 63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업·농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농·축협 위상제고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회 역량 집중" 등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생산·유통 혁신을 통한 미래농업 선도 및 농업소득 향상 ▲금융부문 혁신과 디지털 경쟁력 증진으로 농·축협 성장 지원 ▲미래경영,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새로운 농협 구현 ▲도농 교류 확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직원들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지난 60여 년간 농협이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격려했다. "현재 농협을 바라보는 국민과 농업인들 시각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



강호동 신임 농협중앙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드는 데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협의 모든 업무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직원들이 주역이고, 회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후원자, 보조자 역할"이라고 말했다.

취임식에는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문표 국회의원, 김윤철 합천군수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고용24' 온라인 서비스 100여종 이용

신청·신고·조회, 디지털 고용 플랫폼

이달 시범운영에 들어간 '고용24'를 통해 컴퓨터나 모바일로 100여 종의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11일 오후 충북 음성 소재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해 '고용24'를 시연했다고 밝혔다.

고용24는 기간워크넷(취업지원),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직업훈련포털(내일배움카드), 취업이름(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본질적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신고·조회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고용 플랫폼 서비스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구직자나 구인기업 모두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24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구인구직(24종), 실업급여(14종), 직업훈련(11종) 등 100여 종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청년 구직자는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고용24에 탑재된 인공지능 기반 잡케어 프로그램을 활용, 재학생

에게 전공·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설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고용정보원은 올해 하반기 고용24 정식 오픈 전까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구인·구직 등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정보원이 보유한 각종 고용행태데이터를 활용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분석', '각종 고용정책·사업 평가', '디지털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고용정보원의 강점인 디지털, 데이터, 연구기능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 기존의 일자리정책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체감 서비스를 적극 창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중 고용정보원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개인별·기업별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도입을 확대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JUNO GOLF
PREMIUM GOLF STUDIO

골프, 유튜브로 싱글되기!

검색하세요
주노골프

핵심 콕콕! 깔끔하고 명쾌한 원포인트 레슨!
반복시청만으로도 누구나 싱글!
김준호 프로의 골프레슨을 무료로
시청하세요



김준호
프로

- 📍 KPGA 프로
- 📍 전) 국가대표 및 상비군 주장
- 📍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졸업(골프전공)
- 📍 미국 Brian Mogg 골프스쿨 3년 수료
- 📍 호주 Ryde Paramatta Club 대표선수(4Y)
- 📍 미국 호주에서 다년간 골프 레슨

- 유튜브 > 주노골프
- 인스타그램 > juno_kim_44

주노프리미엄골프스튜디오
070-4243-9238

위치: 강남구 강남대로146길 8
B1 주노골프스튜디오



포항시, 지역 대표 수소전문기업 육성 박차

포항·경북 투자, 포항TP서 수행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총 3.9억 지원, 獨 연구 기회 제공

포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내 수소 관련 기업들을 포항시 수소 경제를 이끄는 주역으로 키우기 위한 '2024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예산을 투자하고 포항테크노파크(이하 포항TP)에서 수행하는 이 사업은 수소의 우수 기술 및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지역 소재 기업에게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포항의 대표 수소전문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임을



지난해 열린 경상북도 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간담회에서 '2023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중간 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산업부에서 확인받은 기업이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정부로부터 수소 관련 기술개발 사업과 및 보조 용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 2021년 6월 첫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87개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시에서는 사업 시행 첫 해인 2023

년에 ㈜에프씨아이(이하 에프씨아이)를 비롯한 7개사가 선정돼 H2MEET(국내), World Smart Energy Week FC EXPO(일본)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신규 특허 출원, 고용 창출 등 성과를 내었다. 특히 선정기업 중 하나인 ㈜해스가 경북제1호 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내 수소산업의 활성화와 투

자유치에도 큰 탄력이 붙게 됐다.

'2024년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은 포항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기업(5개 사 이내)에 총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와 협업해 지역 소재 우수 기업에게 SOFC·SOEC 세라믹 소재 연구, PEMFC와 알카라인 수전해의 시스템 성능향상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포항시는 이를 통해 기술 개발 역량이 있음에도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과의 접촉이 어려워 사업화에 한계가 있는 지역 소재 중소수소기업에게 기술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돕고 나아가 해외 판로를 개척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디딤돌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휴 맥도날드(Hugh McDonald) 미국 아칸소주 상무장관 일행은 지난 10일 경상북도-아칸소주 간 우호 교류 협력 방안을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예방했다. /경북도

경북도 美 아칸소주 상무장관 예방

휴 맥도날드(Hugh McDonald) 미국 아칸소주 상무장관 일행이 지난 10일 경상북도-아칸소주 간 우호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예방했다.

아칸소주는 미국 남부 중서부에 있는 주로, 한국전쟁 영웅 맥아더 장군이 이곳 아칸소 리틀록 출신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방정부 간 우호 교류 뿐만 아니라, 우수인력 유치 및 자매결연 체결 등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경북=장영우 기자

전남도, 호치민에 상설판매장 열어 농수산물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

신짜오 코리아 마트 입점 16개 수출기업 44개 품목

베트남 호치민에 전남산 농수산물 상설판매장이 문을 열었다.

이로써 전남은 전 세계 9개 나라 23개로, 지구촌 곳곳에 상설판매장을 구축해 농수산물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호치민 상설판매장은 한국식품 대표 마켓인 신짜오 코리아 마트(대표 임맹산)에 입점했다. 전남산 농수산물 수출을 전문 취급 상설판매장이다.

신짜오 코리아 마트는 호치민과 봉따우, 빈즈, 무이네, 동나이 지역에 21개 식품전문매장을 운영 중이다. 현지 소비자와 관광객, 한인을 대상으로 전복차우더(수프), 김, 미역, 해초국수, 유자초코크런치, 한식육수 등 전남 16개 수출기업 44개 품목의 농수산식품을 수입해 판매하게 된다.



베트남 호치민에 전남산 농수산물 상설판매장이 문을 열었다.

전남도는 9개국에서 22개 상설판매장을 운영해 지난해 기준 1026만 달러의 수출고를 달성했고, 올해 신규 운영사 선정을 통해 연말까지 10개 매장을 추가로 개장할 예정이다.

신현근도 국제협력관은 "상설판매장이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 전진기지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승녀 기자 ysn6313@

경남도, 공공 온실가스 39.7% 감축

목표감축률 36%... 초과 달성

경남도는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배출량 대비 5만5783t CO2eq 감축해 목표감축률 36%를 초과한 39.7%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준배출량은 기관별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으로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한 것을 말한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공공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지난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청사 적정 실내온도 유지와 대기전력 저감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탄

소중립포인트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 같은 활동으로 정부 목표감축률보다 3.7% 초과한 39.7% 달성 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경남도는 2017년부터 7년 연속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등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경상남도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남도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대구시, 식품산업 수출 중심으로 전환

'대구 식품산업 육성 계획' 추진

대구광역시시는 해외 한민족 최대 축제인 LA 한인 축제와 대만 최대 식품 박람회인 FOOD TAIPEI에 대구 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유통망 구축에 나서 내수 위주의 지역 식품산업을 수출 중심으로 전환하는 '2024년 대구 식품산업 육성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1년 대구의 식품산업 매출액은 24조 4천억 원 규모로 5년간 연평균 5.1%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내수 위주로 국내 경기의 영향을 쉽게 받고 브랜드 인지도를 내세운 대기업과 경쟁에서 밀릴 뿐

아니라 가격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광역시시는 지역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중심의 윈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수출 주도의 글로벌 대구 식품산업 육성을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윈스톱 지원은 수출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발굴해 ▲1단계로 국가별, 시장별 맞춤형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2단계로 수출에 필요한 할랄, 코셔, FDA 등 각종 국제 인증을 지원하며 ▲3단계로 국내외 판촉 지원을 통해 대구 식품의 수출 확대를 내용으로 한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경북도, 지역맞춤형 마을숲정원 조성

영양·영덕군 최종 사업대상지 선정

경북도는 마을 주변 자투리땅이나 유휴부지, 공한지 등에 지역맞춤형 마을숲정원 조성에 나선다.

도는 지난 8일 2024년도 경북형마을숲정원 조성 사업지로 영양·영덕군을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경북형마을숲정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신규시책으로 경북 내 마을 주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공한지 등을 지역맞춤형 마을숲 정원으로 조성해 녹색생활 공간 확충과 생활 속 정원문화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영양군 '선바위 마을숲정원'은 입암면 신구리 95-7 일대 1만 1500㎡ 부지에 영양군 분재야생화 테마파크와 연계한 정원을 조성한다.

영덕군 '강구항 마을숲정원'은 강구면 삼사리 일원 4328㎡ 부지에 주민

휴게공간 제공 및 이미 조성된 실외 정원과 연계한 테마정원 조성한다

현 사업대상지는 영양군, 영덕군 내 방치된 대규모 유휴지로 녹색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올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지 요건 충족지역을 수요조사 한 후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대상지의 규모, 입지 및 마을 주변 접근성, 사후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선정 사업지 2개 지역은 3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개소당 1억 8000만원 내외로 지원된다.

조현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시·군 마을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원을 접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w57@

하동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16억 투입

경남 하동군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예산 16억원을 투입한다.

하동군은 2018년부터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올해도 16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조기 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3가지 세부 사업으로 진행된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울산시

관내 대학 경쟁력 강화 나서

울산시는 지역의 청년인구를 늘리고, 관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관내 대학 경쟁력 강화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모 결과 관내 대학 5개(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울산캠퍼스)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울산지역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주시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 지원

경주시는 지난 9일 평생학습가족관에서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 대상자로 선정된 20세대 가족들을 초청해 환송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주남영 경주시장, 임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이상욱 국제친선교류협의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경주시국제친선교류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자녀양육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오랜 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여성들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거주 정착을 돕고자 마련됐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주류업계, 프리미엄 증류식·저도수 트렌드

MZ 입맛 맞춘 '소주' 신제품 봇물

최근 주류업계가 주 소비층으로 급부상한 MZ세대를 잡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해 맥주 신제품으로 경쟁이 치열했다면, 올해는 소주가 그 주인공이다.

업계는 증류식 소주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소주의 도수를 낮추는 등 변화하는 주류 소비 트렌드에 맞춰 변화를 주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올초 증류식 소주 '여울'을 출시하고 소주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2021년 '대장부' 생산을 중단한 지 3년만에 프리미엄 소주시장에 재도전한 것이다.

여울은 25도의 증류식 소주로 국산 쌀과 국산 효모, 누룩을 사용했다.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하는 감압증류법을 적용했으며 20~25도 상온에서 단기간 2달 발효해 향긋한 풍미를 살렸다. 또 병입 전 0℃ 냉동 여과를 거쳐 부드럽고 깔끔하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희석식 소주 '처음처럼', '새로'에 이어 증류식 소주까지 라인업을 확대했다"며 "다양해진 소비자들의 기호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류식 소주 시장에서는 하이트진로의 '일품진로'와 광주요그룹의 '화요'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가 여울을 선보이는 데에는 증류식 소주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제청 주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증류식 소주 출고량은 4905kl로 전년(2480kl)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2022년 증류식 소주 출고금액은 약 1412억원으로 전년(646억원)의 2배를 넘어섰다. 아직 집계되지 않



원신피릿츠의 '원소주'(왼쪽부터) 롯데칠성음료가 올초 출시한 증류식 소주 '여울',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후레쉬' /각사

롯데칠성 프리미엄 증류식 '여울' 국산 쌀·효모·누룩 사용 '25도'

박재범 '원소주' 누적판매 650만병 성시경, 경막걸리 이어 경소주 예고

하이트진로 '참이슬 후레쉬' 16.5도→16도 도수 낮춰 리뉴얼

은 지난해 역시 증가 추세를 지속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연예인들이 증류식 소주 시장에 진출하면서 인기를 끌어올렸다. 2022년 가수 박재범은 '원소주'를 출시하면서 시장에 출시표를 던졌다. 해당 제품은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650만병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최근 가수 성시경이 본인 이름을 내건 막걸리 '경막걸리'를 론칭한 데 이어 증류식 소주 '경소주'도 선보이겠다고 밝혀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증류식 소주의 인기는 술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집에서 혼자 술을 즐기는 '혼술' '홈술' 문화가 확산하면서

서양식 증류주인 위스키와 프리미엄 소주에 대한 니즈가 커졌다. 업계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저도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참이슬 후레쉬' 브랜드를 전면 리뉴얼하며 제품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낮췄다. 단, '참이슬 오리지널'과 '진로'는 소주 본연의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도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이번 리뉴얼 단행은 저도수 선호 트렌드가 확산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쟁사인 롯데칠성음료의 제로슈거 소주 '새로' 역시 16도다.

소주 시장 선두 주자가 도수를 낮춤에 따라 도수 하향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취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면, 지금은 '즐기기 위해' 술을 마신다"며 "젊은 MZ소비층 니즈에 맞춰 프리미엄 주류를 출시하거나 차별화한 제품을 개발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쿠팡 "일본 상품도 로켓직구 하세요"

간식류·뷰티·키친 브랜드 상품 준비

쿠팡이 '로켓직구' 서비스를 일본으로 확대함에 따라 쿠팡 로켓직구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는 일본 상품도 직구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쿠팡은 미국, 중국, 홍콩에 이어 로켓직구 일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로켓직구는 쿠팡이 제공하는 빠르고 편리한 해외 직접구매 서비스다. 쿠팡은 2017년 미국을 시작으로 2021년 중국, 2022년 홍콩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왔다. 쿠팡은 이달 로켓직구 일본 서비스 론칭으로도 한 번 해외 직구 서비스 경쟁력 증명에 나선다.

쿠팡은 이번 로켓직구 서비스를 통해 ▲닛신, 메이지, 르타오, AGF 등의

식품/간식류 ▲국내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생활용품/뷰티 브랜드 쉐카, 비오레, 피노, 츠바키, 일본 피앤지(P&G) 등의 제품을 선보인다. 또 ▲이시다, 조셉조셉 등 유명 홈/키친 브랜드 제품과 ▲지브라, 미쓰비시, 펜텔 등 도서/문구 제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다.

론칭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일본직구 전 상품 및 일부 미국, 중국 상품을 대상으로 4만5000원 이상 구매시 3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신혼가전, 브랜드 혼합해도 최저가 할인"

전자랜드 '전국민 1등 패키지' 선택

전자랜드가 신혼부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 가전제품을 살 때 한 브랜드로 통일하지 않아도 할인받을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전자랜드는 3월부터 '전국민 1등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TV와 냉장고를 특정 제조사 제품으로 선정하고 세탁기나 의류관리기는 다른 제조사를 선택하는 등 브랜드를 혼합해 구매해도 온라인 최저가보다 큰 폭의 할인가가 적용되는 행사다.

전자랜드는 '가성비 실속 패키지'도 추천한다. TV와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밥솥 등 필수 가전 5가지 특가 모델

을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300만원 대에 모두 구매할 수 있다. 단순 번심으로 반품돼 포장을 뜯지 않은 '리퍼비시' 상품은 최대 40% 할인된 특가로 살 수 있다.

전자랜드는 신혼 때 사는 가전제품은 1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체험해 보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국 전자랜드 매장에 방문하면 150여 개의 국내외 브랜드 제품을 전문 상담사의 설명과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전자랜드 온라인몰인 전자랜드쇼핑몰에는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간편식 및 가공식품 등 식품류부터 캠핑용품, 골프채 등 여가용 물품까지 판매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CJ인베스트먼트 'CJ글로벌벤처스 2기' 심사단계부터 포춘 500대 기업 매칭

CJ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J인베스트먼트가 글로벌 진출이 유망한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대기업 매칭을 통해 스케일업(사업확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CJ글로벌벤처스 2기'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한국무역협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창경)가 공동 주관사로 참여한다. CJ인베스트먼트는 스타트업 발굴부터 선정,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 프로그램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한국무역협회는 포춘 500대 기업 매칭 및 기술검증 연계 지원, 경기창경은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및 해외 벤처캐피탈(VC) 연계를 각각 담당한다.

CJ글로벌벤처스에는 차별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모두 지원 가능하다.

또, CJ그룹 및 경기창경에서 투자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포함해 CJ의 대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오벤츠 졸업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 기업은 모두 1차 서류 심사가 면제된다.

이번 CJ글로벌벤처스는 스타트업에 대한 실질적인 글로벌 스케일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참가 스타트업에 대한 심사 단계부터 이들 기업에 관심이 있는 포춘 500대 대·중견 기업을 매칭할 예정이다. CJ글로벌벤처스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이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글로벌 대기업에 1대1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11일부터 4월 3일까지 한국무역협회 이노브랜치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인터뷰 등을 거쳐 오는 5월 27일 총 20개팀이 최종 선정된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SG닷컴 '창립 5주년' 15일까지 '오썩데이즈'

SSG닷컴(쓱닷컴)이 창립 5주년을 기념해 오는 15일까지 '오썩데이즈'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오썩데이즈'를 통해 쓱닷컴은 인기 상품을 선정해 할인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대표 상품으로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공기청정기·청소기, 브라운 전기면도기, 휘슬러 조리용품, 마이크로 키보드, 파인캐디 골프거리측정기 등을 선보인다. 매일 2회에 걸쳐 한정 판매하는 '타임딜'도 마련해 반려동물 간식, 화장품, 의류, 가구, 가전 등 다양한 상품군으로 구성했다.

'쓱 라이브 방송'도 행사 기간 매일 편성한다. ▲11일 르쿠제 위너더풀 컬렉션과 나르왈 로봇청소기 ▲12일 삼성 갤럭시 S24 자급제폰과 LG 오브제컬렉션 제품기·스텐바이미 ▲13일 레고 신상품과 특색있는 헤어&바디세트 ▲14일 데코르테 리포솜 세럼·크림과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15일 삼성 갤럭시 북4 프로 등을 순서대로 소개한다. 쓱닷컴 대표 식료품 행사인 '푸드 쓱세일'은 이번 창립 행사와 연계해 오는 14일까지 연다.

/이청하 기자



롯데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에서 고객이 봄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롯데백, 14일부터 '스프링 패션 페어'

한성·삼성물산 등 140여 브랜드 참여

롯데백화점이 봄 단장에 나선 고객 수요 잡기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롯데백화점 전점에서 '스프링 패션 페어'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한성, 삼성물산, LF, 코오롱 등 총 140여 브랜드가 참여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2023년 대비 참여 브랜드가 80% 늘었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고객들에게 더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롯데백화점은 행사 기간 중 참여 브랜드의 봄 신상품을 롯데카드 100만

·200만·300만·500만·10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에게 최대 7% 롯데상품권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구매 시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300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최대 10개월 무이자 할부를 적용한다.

브랜드별 주요 혜택으로는 '한성 더블 마일리지'를 선보인다. '타임', '마인', '랑방컬렉션' 등 한성 브랜드 구매 시 기존 5% 마일리지와 추가 5%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삼성물산 대표 브랜드인 구호, 르베이지, 빈폴, 폼데가르송 컬렉션 등에서는 오는 15~17일 10% 할인하는 '브랜드 데이'를 진행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호캉스로 로맨틱한 ‘화이트데이’ 보내세요”

서울드래곤시티 ‘스윗커플’ 케이크, 모엣상동 샴페인 등 제공
롯데호텔리조트 ‘블루밍 러브’ 11개 호텔·리조트 특색 담은 특전
JW메리어트호텔 ‘시크릿 로맨스’ 때깡저 녹턴 샴페인 등 룸서비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시크릿 로맨스(Secret Romance)’ 패키지.

호텔업계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관련 프로모션과 패키지를 출시하며 손님맞이에 나섰다. 객실에서 케이크와 샴페인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를 선보일 뿐만 아니라, 클럽 라운지 이용 및 향수 증정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호텔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해 연인과 낭만적인 하루를 보내고 싶은 고객을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11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신개념 라이프스타일 호텔 서울드래곤시티는 화이트데이를 기념해 객실 패키지와 스페셜 디너 프로모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우선, 연인을 위한 객실 패키지 ‘스윗 커플(Sweet Couple)’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해당 패키지는 객실 1박, 패션 화이트 미니 케이크, 모엣상동

샴페인 1병, 부대 시설 이용 혜택으로 구성된다. 이용객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누릴 수 있도록 케이크와 샴페인은 체크인에 앞서 객실에 세팅된다. 서울드래곤시티 4개 호텔(그랜드 머큐어·노보텔 스위트·노보텔·이비스 스타일)에서 진행된다.

‘화이트데이 스페셜 디너’는 2개 식음업장에서 운영한다. 모던 프렌치 비스트로 ‘알라메종 와인 앤 다인’에서는 블랙트리플 리소토와 한우 새우살 스테이크 등 7코스로 펼쳐지는 디너를 와인 페어링해 즐길 수 있다. 브라세리 ‘THE 26’은 모엣&상동의 시그니처 샴페인 ‘임페리얼 브뤼’ 1병을 포함한 디

너 코스를 운영한다. 이용객은 통창 너머로 펼쳐진 야경을 감상하며 6가지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로맨틱한 이벤트를 고민하는 고객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스위트룸 결합 프로모션 ‘블루밍 러브(Blooming Love)’를 운영한다. 국내 11개 호텔과 리조트(시그니엘·롯데호텔·L7호텔·롯데리조트)가 참여하며, 스위트룸 1박과 각 호텔의 특색을 담은 추가 특전을 제공한다.

시그니엘 서울에서는 생화로 꾸며진 객실에서 인룸다이닝 스페셜 디너와 조식을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샴페인 1병과 하트 케이크, 마카롱 등도 증정하

다. 시그니엘 부산은 프랑스 니치 향수 브랜드 ‘딤디크(Diptyque)’ 250ml 4종과 칵테일 2잔, 초콜릿과 마카롱을 포함한 웰컴 아메니티 등으로 패키지를 구성했다.

롯데호텔 서울은 이그제큐티브타워의 스위트룸과 프리미엄 클럽 라운지 라심 2인(조식·애프터는 티·해피아워 포함) 이용 혜택을 포함한 패키지를 운영한다. 롯데호텔 월드와 제주, 울산, 부산에서도 다이닝을 결합한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L7호텔 명동, 강남, 홍대에서는 파스쿠아 로제 와인 1병을 제공한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프라이빗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시크릿 로맨스(Secret Romance)’ 패키지를 선보인다. 체크인 당일 저녁에 호텔 세프가 준비한 사키테리 플래터와 때깡저 녹턴 샴페인 1병을 룸서비스로 제공해 연인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조식 역시 인룸다이닝으로 제공된다. 이용객은 마르퀴스 피트니스 클럽 내 실내 수영장과 따뜻한 테라피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크릿 로맨스 패키지는 디럭스 객실부터 그리핀 스위트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애경산업

보습·광채 기능 결합한 ‘에센스 팩트 아우라’ 출시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가 보습과 광채 기능을 결합한 제품을 선보인다.

에이지투웨니스는 ‘에센스 팩트 아우라’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에센스 팩트 아우라’는 ‘프렌치 아우라 에센스’를 75% 함유하고 있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준다. 프랑스산 콜라겐·히알루론산·브라이트닝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에센스 팩트 아우라’는 4가지 색상이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돕는다. ▲피부 결점을 가리는 ‘스킨 베이지’ ▲에너지를 주는 ‘래디언스 핑크’ ▲화사한 피부톤을 위한 ‘톤업 화이트’ ▲붉은기를 커버하는 ‘아이스 블루민트’ 등이다. /이정하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선보인 4세대 맥주 크러시 /롯데칠성음료

셀트리온, 美 두드러기 치료제 허가신청

美 FDA에 ‘CT-P39’ 신청 완료
 “퍼스트 무버 될 가능성 높은 상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미국 천식·두드러기 치료 시장을 공략한다.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품(FDA)에 천식·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 (성분명 오말리주맵)의 바이오시밀러 ‘CT-P39’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 6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CT-P

39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 식품 알레르기,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등 주요 적응증에 대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임상에서는 CT-P39 투여군과 졸레어 투여군 두 그룹으로 나눠 각 300mg, 150mg 용량별 투약 임상을 진행했다. 300mg 투여군의 투여 시작 시점 대비 12주차의 주간 간지림 점수 값(ISS7) 변화를 1차 평가지표로 측정했다. 측정 결과 CT-P39는 사전에 정의한 동등성 기준을 충족했다. 2차 평가지표인 안전

성, 면역원성 평가 등에서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 미국 품목허가 신청에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해 유럽, 캐나다 및 국내에서도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미국 품목허가 신청의 경우 인터체인저블(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로 허가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승인 시 오리지널 제품과 대체 처방으로 빠른 시장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CT-P39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졸레어는 작년 기준 글로벌 매출 약 5조원

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이미 물질 특허는 만료됐다. 제형 특허는 유럽에서 2024년 3월, 미국에서 2025년 11월 각 만료될 예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39는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유효성과 동등성 입증은 물론 안전성도 경쟁사 대비 빠르게 확인하면서 퍼스트 무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이미 상업화된 6개 제품에 더해 오는 2025년까지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총 11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2030년까지는 총 22개 제품을 확보해 연매출 12조원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mlee236@

에스티팜, 레고캠바이오와 ADC 분야 협력

(항체·약물 접합체)

제조공정 공동연구·제조위탁 계약
 핵심 구성품 공급망 구축으로 상생

에스티팜이 레고캠바이오와 협업해 항체·약물 접합체(ADC) 핵심 구성품에 대한 국내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에스티팜은 레고캠바이오와 ‘ADC 링커 제조 공정 공동연구 및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에스티팜은 레고캠의 ADC 콘쥬를 플랫폼에 필수적인 링커의 일부분에 대한 공정 최적화 연구부터 미국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cGMP) 기반의 생산 전반에 걸친 위탁개발생산(CDMO)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스티팜은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cGMP 인증을 받은 원료

의약품 전문 기업이다. 소량의 임상용 시료부터 톤 규모의 상업화 물량까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저분자 원료의약품 및 올리고 원료의약품 모두 미국 FDA로부터 cGMP 인증을 받은 글로벌 유일의 CDMO 기업이다.

레고캠바이오 ADC기술과 합성신약 분야에서 차별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다. 현재까지 레고캠바이오가 글로벌 제약사들과 맺은 기술이전 계약은 총 13건으로 최대 8조 7000억원 규모다.

양사는 국내 기업이 갖춘 연구개발 노하우, 기술력, 제조역량 등을 바탕으로 항체, 링커, 페이로드 등 ADC의 모든 요소에 대해 국내 공급망을 구축해 상생할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대상 오피드,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 론칭

간편식사·디저트 2가지 카테고리

식품기업 대상의 글로벌 식품 브랜드 오피드(O’food)가 한국 인기 길거리 음식 및 대표 분식 메뉴를 총망라한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 라인을 론칭하고, K-푸드 외연 확장에 나선다.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힘입어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김밥, 떡볶이, 핫도그 등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화제를 모으며 글로벌 수요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대상의 오피드 떡볶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4.7배 증가하며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와 아마존에 입점하는 등 판로 또한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는 크게 간편



대상 오피드가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를 론칭하고 K-푸드 외연 확장에 나선다. /대상

식사류와 디저트류의 두 가지 카테고리 선본이다. 식사류는 기존에 판매 중인 만두, 떡볶이, 김말이, 어묵바에 더해 김밥, 핫도그, 전 등 신규 3개 품목을 늘린 7개 품목(총 20종)으로, 디저트류는 기존 판매되는 호떡, 봉어빵, 호두과자에 이어 신제품 곡물스낵까지 4개 품목(총 8종)으로 운영한다.

/신원선 기자

롯데칠성음료

크러시, ‘FC서울’와 공식 스폰서십 체결

롯데칠성음료는 맥주 ‘크러시’가 프로축구의 최고 흥행 구단인 ‘FC서울’과 공식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크러시는 FC서울의 2024시즌 공식 맥주로서 일상 외 스포츠 현장 접점에서 다양한 음용 경험을 제공하고 이와 연계한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스폰서십을 통해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마련된 스카이립, 스카이박스, 상설 팬카페 등에서 크러시를 만나볼 수 있으며, 특히 스카이립에서는 경기 중 크러시 생맥주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조아제약

美 자연건강식품박람회 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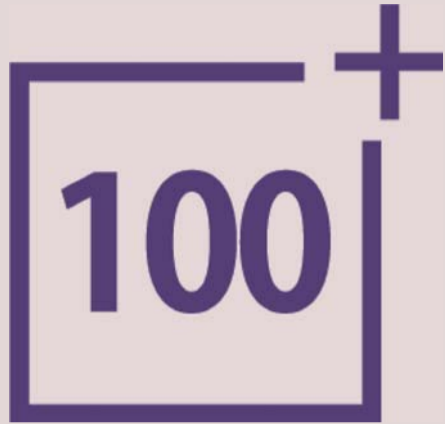
조아제약이 해외 박람회 참관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익 다각화에 나선다.

조아제약은 오는 14일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애너하임 자연건강식품박람회 2024’에 참관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연건강식품박람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로 지난 2023년에는 120여 개국 3000여 업체가 참가했다.

조아제약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신규 거래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조아 세피지 앰플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이정하 기자



2024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1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2024.03.20(수)

14:00~17:10

서울 명동은행회관2층국제회의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칼리지 수료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본부장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오후 14:00 ~ 17:1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등 록: <https://www.metroseoul.co.kr>(메트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13:30~14:00 VIP Tea타임)
축사	14:00~14: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개회사	14:00~14:20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1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전망
강연1	15:10~15:50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강연2	15:50~16:3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부동산전망과 투자전략
강연3	16:30~17:10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본부장 : 고령화시대, 재테크 전략
폐회	17:10	



현대차, 내달 'HMG 드라이빙 센터' 운영

현대자동차그룹이 고객 체험 시설과 주행시험장을 결합한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의 2024 시즌 운영을 내달 5일부터 시작한다. 센터 프로그램은 드라이빙 기초부터 레이싱 테크닉까지 배울 수 있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와 연령과 관계없이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드라이빙 플래저'로 구성됐다. /현대차



KB자산운용, 취약계층 어르신 위한 배식봉사

KB자산운용은 지난 7일 명퇴원 종로분원을 방문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배식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부터 재개하는 배식봉사활동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연말까지 매월 2회씩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가 임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KB자산운용



DGB금융그룹 대학생봉사단 발대식 개최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지난 8일 대구은행 제2 본점에서 대학생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DGB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지역 내 대학생으로 구성된 대학생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40명의 대학생봉사단이 포용금융교육 지원, 시설·기관 봉사, 환경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DGB금융그룹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

국내학사 장학생 60명 선발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은 2024학년도 국내 학사 장학생 60명을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4년제 대학교 2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평점 4.5점 기준 3.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5학기 동안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예체능을 포함해 모든 전공 학생을 고르게 선발하며, 오는 29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받는다. /양성윤 기자

CJ, 'K-스타주' 2기 참가자 모집

CJ제일제당이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실습 프로그램인 'K-Stage(스타주)'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K-스타주'는 유망 한식 셰프를 발굴, 육성하는 Cuisine, K(퀴진케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식을 세계적인 미식의 반열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반을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2기에는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4 2스타 레스토랑 '권숙수', 1스타 레스토랑 '소설한남' '솔밤' '에빗(EVETT)'이 참여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손명순 여사 영면... 김영삼 前 대통령 묘역 합장

(前 영부인)

반기문·한동훈 등 영결식 참여
한덕수 총리 "민주화 큰 버팀목"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영면에 들었다. 손 여사는 서울현충원 내 김 전 대통령 묘역에 합장됐다.

이날 오전 손 여사의 영결식이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됐다. 정병국 전 의원이 사회를 보았으며, YS 정부 시절 통상산업비서관을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사를 읽었다. 상도동계 좌장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추도사를 낭독했으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약력을 소개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이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손명순 여사의 영결식에서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헌화 및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인제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도 영결식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조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거산(巨山)으로 우뚝 선 김영삼 전 대통령님을 묵묵히 받쳐주신 큰 버팀목이 바로 손명순 여사님"이라며 "김(전)대통령이 이끄신 민주

화의 길과 대도무문(大道無門·큰 도리에는 거칠 것이 없다)의 정치는 여사님의 헌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손 여사의 발인식이 진행됐다. 발인식에는 고인의 장남 김은철

씨,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장손 김성민 씨,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유족들이 참석했다. 발인식은 개신교 예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예배는 김장환 목사가 맡았다. 유족 30여명을 비롯해 원로 정치인들, 상도동계 막내인 정병국 전 의원 등 약 100명이 발인 예배에 참석했다.

발인 후 운구 행렬은 손 여사와 김 전 대통령이 평생을 함께 지내왔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으로 이동해 노제를 지냈다.

상도동 자택은 YS 계파를 의미하는 '상도동계' 이름이 유래된 곳으로 장손인 김성민 씨가 손 여사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자택 정문으로 들어서 왼편 경호동부터 오른편 본채까지 이동했고, 유가족들이 함께 둘러보며 고인을 추억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metroseoul.co.kr

유한양행, 故 유일한 박사 추모식... '애국애족' 정신 이어간다

조옥제 사장 등 500명 참석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분"

유한양행이 고(故) 유일한 박사의 애국애족 정신과 기업 이념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유한양행과 유한재단, 유한학원은 1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에 위치한 유일한 기념홀(윌로우 하우스)에서 '고(故) 유일한 박사 제 53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유한양행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는 지난 1971년 3월 11일 76세를 일기로 영면하였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족과 조옥제 유한양행 사장을 비롯해 유한양행·유한재단·유한학원 및 유한 가족사 임직원, 재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1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에 위치한 유일한 기념홀(윌로우 하우스)에서 '고(故) 유일한 박사 제53주기 추모식'이 진행됐다. /유한양행

조옥제 유한양행 사장은 추모사에서 "유일한 박사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당신의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떠나시면서도 안타까워 하시던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분이였다"고 말했다.

유일한 박사는 한국 기업의 선구

자로 1926년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제약회사 유한양행을 창립했다. 1971년 3월 11일 작고할 때까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공익법인 유한재단을 설립하는 등 모범적인 기업 활동을 펼쳤다.

특히 유일한 박사는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정신을 몸소 실천한 기업인으로 알려졌다.

유일한 박사는 '기업은 사회의 것'이라는 일념으로 1936년 개인 기업이던 유한양행을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해 국내 최초로 종업원주주제를 채택했다.

1962년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주식상장을 통해 기업 공개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어 1969년에 이미 경영권 상속을 포기하고 전문경영인체제를 정착시켰다.

이어 유일한 박사 딸인 고(故) 유재라 여사 역시 1991년 세상을 떠나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 등 200억원 대의 재산 모두를 사회에 기부하며 2대에 걸친 전 재산 사회환원을 실천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모비스, 파트너스 데이 개최... ESG 경영 등 소통 강화

협력사 대표 200여명 초청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야"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협력사와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올해는 특히 안전 품질과 ESG 경영, 부품 공급망 안정화 등 분야에서 상호 소통과 협업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8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주요 협력사 대표 200여명을 초청해 '2024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대모비스와 협력사 간 파트너스 데이는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업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는 자리로 올해로 24회째를 맞는다.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단상 가운데)가 지난 8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개최한 '2024 파트너스 데이'에 참석해 협력사와의 건강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는 이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상호 발전적 관계를 구축해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특히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협력사 여러분들의 제안과 요청, 의견을 듣고 일정을 정해 반드시 피드백하는 문화를 저부터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동반성장의 파트너인 협력사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ESG 관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 기술 위원회, 온라인 신문고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윤 기자 ysw@

인사

- ▲하이투자증권 <이동> ◇상무△리스크관리본부장 서상원(신규 선임) ◇직무대행△투자심사본부장 오주환
- ▲엔자임헬스 <임원 및 본부장 승진> ◇전무△김세경 헬스케어PR본부 △소영식 마케팅 본부 ◇이사△장우혁 피플팀 ◇본부장△이영미 마케팅 본부
- ▲바이오스펙테이터 ◇승진△편집국 수석기자 김성민

부음

- ▲박광웅씨 별세, 김재용(마이금융파트너 대표이사)씨 병무상=1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40분. 02-3010-2000 ▲김재철씨 별세, 김종혁(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행정팀장)씨 부친상= 10일 오후 6시20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장례식장 특실, 발인 13일. 063-548-4700 ▲곽동근씨 별세, 이낙영씨 남편상, 광창현(GS리테일 대외협력부문장)·곽수현씨 부친상=10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 발인 13일. 02-2072-2020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지능은 어디에 있는 걸까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책에도 인연이 있는 것 같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러다 다시 또 만나는, 그런 인연 말이다. 필자와 그런 인연이 깊은 책이 있다. 니콜라스 네그로폰테가 쓴 '비잉 디지털(being digital)'이다.

처음의 인연은 1996년쯤이니까 30년이나 되었다. 대학로에서 출판사를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생출판사에서 무척 공을 들여 만든 책을 입수한 것이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책과 함께 술도 곁들여 얻었던 것 같다. 번역자인 백육인 교수와 발행인인 박영률 대표가 '비잉 디지털'이라는 원 제목을 '디지털이다'라고 바꾼 것에 대해 흐뭇하게 말했던 언어의 뉘앙스가 기억나고, 책을 온통 은박지같은 커버로 만들어놓았던 시각의 페티시도 아주 잊혀지지 않고 떠오른다.

다음 날인가 지끈지끈한 머리를 누르며 책을 펼쳤던 것 같다. 은박지를 둘러싼 양장본이라서 책의 어포던스가 손가락과는 잘 맞았던 듯 싶다. 그러나 '비트

는 색깔도, 무게도 없다' 느니,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 느니 하는, 모르는 언어 투성이에 생소했고, '대역폭(bandwidth)이란 특정 채널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말한다'란 문장에 다다르면 주눅이 많이 들었다.

그렇게 반짝이는 은박지를 책꽂이에 꽂아만 두고, 썰필 지나치기만 하면서 20여년을 살았다. 그 사이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고, 아이를 낳아 집도 몇 번 이사를 했지만 '디지털이다'는 어김없이 책장에서 버젓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니 '언제가 나를 안보던 큰 일 날걸'하는 압박감은 더욱 커지기만 했다.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이 왔고,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강의 주제는 '평생학습 디아스포라, 새로운 소외의 탄생'이었다.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에 의한 소외 현상을 설명하는 기회였다. 드디어 '디지털이다'를 다시 꺼내들려 했는데, 아뵘싸 은박지 책이 온데간데 없었다. 집을 온통 뒤지고, 그러다 못해 층주로 달려가 연구실을 또 한번 뒤집어 놓았지만 은박지는 보이지 않았다. 찾아보니 그제서야 중고서점에 팔려나간 은박지가 기억났다. 오래되고, 해진 책이라고 값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기억도 살아났다.

부라부라 도서관에서 빌린 '디지털이다'가 어찌나 반갑던지. 그때 머리에 들어온 문장이 지능의 거처였다. 지능은 서로 다른 두 곳에 위치할 수 있다. 송신기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당신만을 위한 비트가 골라진다. 비트는 걸러지고, 잘 정리되어 당신에게 전달되며 당신의 집에서 인쇄된다. 그러나 편집 시스템이 수신기에 달려 있는 경우 지능은 수신기에 위치하고 송신기는 모든 비트를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 전송된다.

그렇다. 이미 30년 전에 지능은 디지털 전환하여 비트로 전송되었다. 우리는 네트워크 안에 내 지능을 보관해 두었다. 마치 잃어버린 은박지 책을 도서관에서 꺼내 쓰듯이 말이다.

또 시간이 지나 이번엔 논문을 쓰려고 도서관을 다시 찾았다. 그런데 은박지가 보이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지 '디지털이다'는 보존서고에 묻혀 있었다. 30년이 지났으니 이젠 폐기처분하러나 보다. 앞으로 또 어떻게 만나나? 잠시 걱정하다 문득 생각이 머물렀다. 디지털복을 찾으면 되지.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쉽게 돈 벌 수 없다



기지 수첩 이 승 용 (금융부)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최대 이슈는 가상화폐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최초로 7만달러를 돌파했고,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 역시 최고점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상승 동력이 충분해 올해 10만달러, 2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을 쏟아내면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면서 지금이라도 코인판에 뛰어들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다만 시장 활황을 틈타 불법 리딩방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투자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인이나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좋은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불법 리딩방에 초대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SNS에서 '원금과 최소 500% 이상 수익률 보장', '가상화폐 관련 고급 정보 제공' 등 허위 과장 광고를 보고 투자 불법 리딩방에 가입한다.

이들의 수법은 흔히 말하는 작전 종목 몇 개 추천해 일정금액의 수익을 올려주면 이후 'VIP 회원방' 가입을 유도 또는 '고액의 유료 리딩방'에 초대해 거액의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적게는 연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리딩방에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리더라고 불리는 '투자전문가' 말을 전적으로 신

뢰한다. 실제로 대화방 내용은 가관이다.

"급등 예상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계시면 숫자 1 눌러주세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0만 원씩 더 투자하세요", "하락 전환이 예상됩니다. 숏 배팅으로 전환하세요" 불법 리딩방 리더의 말이다.

사기가 성공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기 때문이다. 코인 리딩방이 위험하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도 피해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일급 기밀'은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아 일급 기밀이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거짓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투자자 스스로 공부하고 익혀서 투자 안목을 키운 후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lsy266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12일 (음 2월 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언행에 주의하라. 48년생 넓게 바라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방법도 보인다. 60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하자. 72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를. 84년생 생각잡게 일이 잘 풀려나간다.



37년생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 49년생 뜻밖의 초대가 있겠으나 당신을 유혹하는 것이니 주의. 61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려고 하면 원망을 듣게 된다. 73년생 비밀은 존재치 않으니 조심. 85년생 노력하다 보면 재기가 된다.



38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다. 50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 신경 쓰자. 62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라. 74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자. 86년생 인생은 자기 혼자 가는 것.



39년생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51년생 자신이 큰 상을 받아오니 마음이 날아갈 듯하다. 63년생 대화 중에 의견대립이 생길 수 있다. 75년생 의욕이 앞선 지나친 살 빼기는 지친다. 87년생 좋은 대인 관계로 오후 결과가 나타난다.



40년생 골치 아픈 일은 배우자와 상의하면 잘 해결. 52년생 시적이 좋으면 마무리도 산뜻하다. 64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다. 76년생 다툼이 생길 수 있으나 조력자가 옆에 있어서 다행임. 88년생 부모 일을 대를 이어 추진.



41년생 속이 상해도 자식이나 참아야 한다. 53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가 내리는 격이니 조심. 65년생 오늘 준비하면 내일은 덜 힘들다. 77년생 말미 친구가 거러의 걸림돌이 되니 유의하라. 89년생 절약이나 낭비는 하나의 습관.



42년생 아랫사람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54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전진. 66년생 배우자가 나에겐 큰 조력자이다. 78년생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90년생 일기를 쓰고 매일 나를 살펴보는 것도 미래발전.



43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실수가 없다. 55년생 하나를 투자해도 세 개로 돌아오는 날이다. 67년생 공과 사를 꼭넉게 따져야 하는 날. 79년생 산도 좋고 물도 좋은 데 내가 머무를 곳은 아니니 실망. 91년생 오후 미팅에서 이성 만남이.



44년생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자. 56년생 결과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68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울적. 80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성공적으로 일이 풀림. 92년생 습관은 행동으로 옮겨지기 마련.



45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눈 돌리지 말아야 한다. 57년생 말이 많은 사람을 조심. 69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81년생 길이나 흉이나는 결과에 따라서. 93년생 병든 뒤 약을 먹기보다는 병들기 전에 심비보험 들도록.



46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됨. 58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셔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70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82년생 무슨 일이 지나치지 않도록. 94년생 운이 좋으면 극적이고 나쁘면 지옥 아니겠는가.



47년생 나르시스트는 나르시즘에서 나온 말로 자기애가 강하다는 말. 59년생 김씨 귀인으로 마음이 즐거운 날. 71년생 봄바람 독가에 주의. 83년생 오늘의 주인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95년생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는 자승자박自勝自縛.



김상회의四季 기술과 인간 사이

얼마 전에 귀한 벽조목을 얻게 되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귀하게 여진다. 인감도장을 새길 정도의 크기만 돼도 상당액을 호가하며 그 크기에 이름을 새기려면 인감 비용 역시 일반인의 통념을 뛰어넘는다. 만약 장인급의 인정을 받는 무형문화재 인사가 인감을 한다면 비용은 더 고액이 될 것이다. 부담은 상당하였지만 나를 전통 기술에 대한 당연한 대우라고 생각을 바꾸었다. 필자의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밭에 채고 흙대밭던 낫그릇과 구식으로만 느껴지던 반닫이 등 고가구는 이제 서민이 아닌 좀 산다는 사람들의 고상한 수집과 품격의 대명사가 된 지도 오래다.

중세 유럽은 '길드'라 하여 전통 상공업자들의 동업자조직인 길드에 서 장인의 기술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도제 방식으로 분야마다 전문 기술과 지식을 보존하고 유지해 왔다.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명품 업체 대부분은 모두 유럽이 그 시원지이다. 옆 일본만 해도 기술자를 우대하여 조상 대대로 가문의 기술을 생업으로 삼으며 작은 굿속집조차 삼대, 사대 그 이상으로 자랑스럽게 유지해오고 있는 정신과 자부심은 참으로 대단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기술을 천시한 사회 신분상의 계급의식으로 인하였지만 다행히도 전승 문화의 중요성과 옛 조상님들의 뛰어난 미학적 감각이 주택 양식이며 소소한 생활용품에도 아름답게 녹아있었다는 사실을 후발이라도 인식하는 것은 다행이다.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AI(인공지능)가 만들어 낸 사람이나 동작이 실제와 다른 것을 알아차리질 못하겠다. 그런데 장인의 손끝에서 발휘되고 뿜어나오는 감(感)과 기(氣)까지 AI가 모방할 수 있을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6	1	5	3			
6								
				3	6			
1			9			7	8	
7								6
8	6		2					4
		2	9					
								9
	9	6		7	5			8

			5			6		
7								3
	4			9	2			7
		4		2	5			
	2							4
				3	6		1	
3			1	8				7
6								
		8				3		

5	8	2	9	1	1	9	6	7
6	9	7	2	8	1	1	1	9
9	1	1	7	9	6	2	8	8
7	9	1	1	2	8	6	9	8
9	2	6	1	8	9	8	7	1
8	1	8	9	6	7	9	2	1
1	6	9	8	7	1	8	9	7
1	7	8	6	9	2	1	8	9
2	8	9	8	1	9	7	1	6

1	9	2	8	9	1	8	6	7
9	8	8	6	7	2	1	1	9
6	1	7	9	8	1	2	9	8
2	9	1	7	9	8	1	8	6
8	7	8	1	1	6	9	2	9
9	6	1	9	2	8	7	8	1
1	1	9	2	6	9	8	7	8
8	2	6	8	1	7	9	9	1
7	8	9	1	8	9	6	1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8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9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민관협력’으로 추진해야”

서울 회수시설 4곳 평균 23년 사용 내구연한 넘겨 효율성 떨어지고 세수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 예상 “적어도 한 곳은 민관사업 추진을”



수변 광역자원회수시설 개념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시)

서울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노후화된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연구원이 펴낸 ‘서울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재원조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광역 자원회수시설 평균 사용 기간은 23년으로 모두 내구연한을 초과해 가동률이 낮아졌다.

폐기물 중간 처리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회수하고 처리 후 잔재물을 최종 처분시설인 매립지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서울에서는 양천·노원·강남·마포 총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1996년, 노원시설은 1997년, 강남시설은 2001년, 마포시설은 2005년부터 가동을 개시했다. 현재 4개 시설 모두 환경부가 제시한 내구연한(15년)을 훌쩍 넘기면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 상태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의 가동률(용량 기준)이 70.6%로 가장 낮고, 마포시설은 75.7%, 양천시설은 84.6%, 강남시설은 89.2% 수준이다.

또 서울의 광역 자원회수시설 중 강남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다. 서울시 광역 자원회

수시설에서 폐기물 1t을 태울 때 발생한 손해는 평균은 1만7000원이었다. 열 관련 설비 차이와 열 판매처의 차이로 시설별 운영 수지 편차가 컸는데, 폐기물 1t을 소각할 때 강남시설은 1만1900원 이익인 반면, 나머지 시설은 최대 5만8000원까지 손해가 났다.

지출 항목별로는 유지보수비가 3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정산비(23.8%), 폐기물처리비(17.6%), 유틸리티비(11%) 순이었다.

연구진은 “서울의 광역 자원회수시설은 수선 등으로 인해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장래 폐기물 소각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현재 설비 용량이 부족하다”고 시설 현대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발생지 처리 원칙 도입 등 정책 여건 변화로 오는 2027년까지 서울의 생활폐기물 총발생량은 2020년 대비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 가능 인구 감소와 재정 지출 증가, 저성장,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 등 서울의 중장기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보고,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민관협력을 통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절차를 거친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설별 현대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재원 부담 절감과 시설 운영 수지 측면에서 서울시는 아직 재원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3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양천·노원·강남) 중 적어도 한 곳을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민관협력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 배분과 관리 원칙을 정립하고, 행정 조직의 사업관리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공유 수업자료 다운로드 많으면 ‘인센티브’ 인천시, 2군·9구 확대출범 준비작업 시작

교육부,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다운로드 100회, 교사에 1만원 포인트 ‘질문하는 학교’ 120개교 운영키로

앞으로 양질의 수업자료를 공유한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의 내려받기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질문하는 학교’ 120개교를 운영하고 학생의 질문역량을 효과적으로 길러주는 교수학습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교실 혁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이러한 내용의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함께학교’ 플랫폼에 올해 하반기 ‘수업 나눔 광장’을 신설한다. 교사 개인 또는 교사연구

회가 만든 양질의 수업·평가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수업·평가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업 나눔 광장’은 교사가 시간간 제약 없이 자발적으로 수업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사가 제작한 수업 자료를 탑재하고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수업 방법을 제안하는 수업 영상을 실시간 재생(스트리밍)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양질의 수업 자료를 제공한 교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운로드(내려받기) 누적 건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다운로드 100회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1만원에 상응하는 1마일리지 지급한다. 포인트로 바꾸려면 적어도 10마일리지

(다운로드 1000회)를 쌓아야 한다.

다만 아무리 인기를 끌어도 500만원에 상당하는 500마일리지(다운로드 5만회)까지만 지급한다.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골드·실버·브론즈 뱃지도 부여한다.

아울러 전국 단위 교사연구회 총 200개를 뽑아 단체당 500만~1500만원을 지원한다.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수업 혁신을 노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올해 ‘질문하는 학교’를 지정해 운영한다. 초등학교 54개교, 고등학교 36개교, 중학교 29개교 등 120개교다. 현장에서 학생들이 먼저 질문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모델을 정부에 제안하면 연말에 우수한 학교를 표창한다.

/이현진 기자 ihj@

2026년 7월 인천 행정체제 새 출범

오는 2026년 7월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시가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법을 제정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9일 국회 의결과 1월 30일 정부의 공포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법률은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郡)·8구(區)에서 자치구 한 개가 늘어

2군·9구로 확대 출범하게 된다.

시는 이번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통해 행정지원, 재정지원,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세 분야로 나눠 준비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출범 준비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해 체계적인 준비와 시 관계부서 및 해당 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자치구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행정지원 분야는 새로운 자치구에 대한 조직 설계 및 인사 운영, 법정동·행정동 조정, 자치법규 정비, 지방공공기관 통합·조정 지원, 민간사회단체 통합·분리 지원, 사무·재산인계 인수 지원 등이다. 재정지원 분야는 재정 조정 방안 마련, 예산 편성 및 결산, 자금 운영, 지방세 등 승계 및 처리, 금고 지정 등이다.

/인천=김태의 기자 dykimi@

의료데이터 연구 프로젝트 참가기업 모집

서울시-복지부, 유망 바이오기업 연결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연구, 서비스를 개발하길 원하는 ‘서울의 유망 바이오기업’을 연결한다.

서울시는 이달 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의료 데이터 중심병원-서울 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할 바이오·의료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분야 10년 이내 기업이다.

시는 바이오기업의 데이터 수요와 병원의 데이터 매칭 과정을 거쳐 총 7개 기업을 선발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www.seoulbiohub.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7개 기업에는 의료데이터 가공, 연구개발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 양곡도매시장 이달부터 현대화 공사

서울시는 양곡도매시장 현대화를 위한 설계를 마치고 이달부터 신축 공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양곡도매시장은 기존 부지에서 약 1km 떨어진 양재동 229-7번지에 건립된다. 시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곡도매시장은 부지면적 8426㎡(연면적 9521㎡)에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만들어진다. 지하 1층에는 양곡을 자연 건조·보관하지 않고 최적의 조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저온 저장고’가 들어선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8 | 해질 / 18:37

3월 12일 (화) / 음력 : 2월 3일

수도권 날씨 / 5~1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3/11, 동두천 3/10, 가평 3/11, 파주 3/10, 서울 5/10, 양평 4/10, 수원 6/10, 용인 6/10, 백령도 3/7, 인천 5/10, 평택 3/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이든, ‘낙태’ 말 못하나…국정연설 ‘재생산 자유’ 두고 뒷말 /사진 뉴시스
▲“美中갈등 속 중국어 배우러 대만 간 외국인 유학생 사상 최대”

▲이집트, IMF와 협상으로 세계은행 등 외자 200억달러 도입길 열려
▲일본 작년 4분기 GDP 성장률 0.1%…2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



▲양회서 더 뚜렷해진 ‘시진핑 1인체제’…‘당정분리 종언’ 공식화 /사진 뉴시스
▲포르투갈 총선, 중도우파 연합 ‘신승’…극우 ‘약진’



주류업계
MZ 입맛 맞춘
소주 신제품 출시
L1



Life

화이트데이
로맨틱 호캉스
보내세요
L2



바자회로 사랑 나누고, 백일장으로 문화 넓히고

“피로 싹~ 풀어주는 이웃의 ‘피로회복제’ 될게요”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동아제약

올해 창립 92주년을 맞이한 동아제약은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동아제약은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2009년부터 ‘사랑나눔바자회’를 개최해 왔다.

특히 ‘2023 사랑나눔바자회’는 엔데믹을 맞이해 4년 만에 열렸다. 코로나19 확산 및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가 재개한 만큼, 지역 사회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사회 공헌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미다.

동아제약은 바자회에서 자사 제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동아제약의 건강기능식품, 구강청결용품, 생활용품, 디마 화장품 등 제품군도 다양했다. 수익금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돼 동대문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동아제약은 ‘사랑나눔 바자회’ 일환으로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대상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기도 한다. 해당 경매 행사를 통해 동아제약은 동아쏘시오그룹 13개 그룹 사 사장단이 기증한 물품을 1/10 가격으로 선보이고 낙찰된 판매 수익금은 사랑나눔 바자회 기부금으로 전액 기부한다.

동아제약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특별한 사회 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2023년 초 국내 예술발전 문학분야 유공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문화체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같은 해 말에는 창사이래 처음으로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문화예술후원 인정제’는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도다. 매년 문화예술 후원 매개 실적이 우수한 단체와 모범적으로 후원 활동을 일구어 낸 기업 및 기관을 심사해 인증한다.

동아제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백일장인 ‘마로니에 백일장’을 1983년부터 40년 동안 상금과 사업비 전액을 지속 후원함으로써 국내 여성 문학의 저변을



지난해 동아제약은 서울 용두동 본사에서 ‘2023 사랑나눔바자회’를 열었다.

/동아제약



동아제약이 매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하는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에 참가한 시민이 글을 쓰고 있다.



지난해 8월 21일 롯데콘서트홀에서 ‘메리투게더, 영화음악에서 베토벤 합창까지’ 자선 연주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인류 건강 넘어 사회적책임 실현 앞장 지난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2009년부터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동대문구 저소득층에 수익금 전액기부

여성문학 저변 확대 ‘마로니에 백일장’ 자선연주회 열어 소외 청소년 후원 친환경 차량 교체 등 탄소배출 절감도

확대하고 여성 문인 발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마로니에 백일장’은 여성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참가자들은 선정된 글제에 따라 시, 산문, 아동문학인 동시 또는 동화 등 한 부문을 선택해 글을 짓는다. 뿐만 아니라 문학 강연, 마로니에 공원을 배경으로 한 야외 공연장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마련된다.

특히 2023년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1회 마로니에 온라인 초간단 백일장’도 열렸다. ‘내 인생 가장 문학적 순간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온라인 글짓기 대회에는 총 171명의 참가자들이 작품을

접수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후 대상 1명, 공감상 5명, 소통상 15명이 수상했다.

동아제약은 순수 예술을 통해 사회가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메리투게더’ 후원도 동아제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꼽힌다.

2020년에는 문화예술봉사단 ‘메리’와 후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화소외계층을 보듬고 있다. 문화예술봉사단 메리는 2015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청소년과 대학생이 하나 돼 오케스트라와 합창 공연을 하는 문화 예술단체다.

동아제약은 시민 관객과 함께하는 문화 자선 연주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연주비 운영 비용 지원과 제품을 후원하고 있다.

동아제약과 메리는 2023년에는 롯데콘서트홀에서 ‘메리투게더, 영화음악에서 베토벤 합창까지’를 주제로 자선 연주회를 열었다. 서울, 경기,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1070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기획단원 390여 명이 참여했다.

무엇보다 동아제약은 자선 연주회를 통해 시민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을 후원하는 데 앞장섰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으로

꾸러진 연주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의 호응으로 티켓 오픈 3분 만에 약 2000개의 롯데콘서트홀 좌석이 매진돼 감동을 더 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박카스가 ‘피로회복제’라면 동아제약이 후원하는 메리는 지역 사회 문화예술 피로회복제”라며 “회사는 메리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우리 지역 사회에 문화예술 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아제약은 친환경 실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데 발맞춘 행보다.

그 가운데 동아제약은 그린오피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 가치를 담은 업무 환경이 그린오피스라고 불린다.

무엇보다 동아제약을 비롯해 동아쏘시오홀딩스의 모든 그룹사가 동참해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79대, 2022년 111대, 2023년 89대, 2024년 81대로 총 360대의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고 나섰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친환경 실천은 멀리 있지 않다”며 “에너지 절약부터 탄소배출 절감까지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KBO 평균 연봉 1억5495만원 류현진·박동원, 25억 공동1위
▲ 두산, ‘옛 사령탑’ 김태형 롯데 감독과 첫 대결서 승리 /사진 뉴시스

▲ 이정후, ‘우상’ 이치로와 뜻깊은 만남…멜빈 감독 주선
▲ ‘손흥민과 충돌’ 이강인 국가대표팀 합류…주민규 첫 발탁



▲ 오타니, MLB 시범경기서 적시 2루타 광…타율 0.533
▲ ‘159골’ 손흥민, 토트넘 구단 통산 득점 공동 5위 올라 /사진 뉴시스